

2019.04.11

근본적이고 통합적인 미래형 대입제도 모색을 위한 연속토론회 ②

■ 토론회

IB는 한국의 낡은 평가 체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주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일시: 2019. 04. 11. (목) 오후 3시 00분

한국의 낡은 평가체제 혁신 도구로써 'IB'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4월 11일 목요일 오후 3시에 본 단체 3층 대회의실에서 근본적인 미래형 대입제도를 모색하기 위한 7차 연속토론회 중 두 번째로 한국의 낡은 평가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IB' 도입의 가능성에 대해 토론할 예정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교육의 해묵은 문제는 5지선다 객관식 평가는 더 이상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 증진이나 미래 핵심 역량 함양 및 교실수업 혁신을 도모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뜻있는 이들마다 유럽과 같이 학교시험과 국가시험 모두 비판적 사고 능력을 측정하고 길러주는 논서술 평가로 전환해야한다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한국과 같이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및 평가의 주체인 교사에 대한 불신 시비가 끊이지 않는 국가에서 논서술 평가는 공허하고 이상주의적 주장이라고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해정 교육과 혁신연구소 소장의 주창으로 이 문제를 해소할 대안으로서 국제 바칼로레아(IB) 시험 제도가 지금 우리 교육계에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의 아이디어는 분명합니다. IB가 논서술 평가이면서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담보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니 일단 도입한 후, 이를 토대로 한국적 논술시험(KB)로 발전시키자는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학교 내신과 국가시험의 논서술 형태가 그의 말대로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 까지 담보할 수 있다면, 이는 매우 매력적인 대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로 그의 이런 제안에 화답하여 몇몇 학교 차원에서 실험적 적용 도입 과정이 거쳤고, 이젠 교육청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문제는 이런 IB 제도에 대해서 학교 현장과 교육 전문가들로부터 거센 비판과 거부감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 스위스에 본부를 둔 IBO에 이 평가 프로그램 도입에 따른 로열티 지급 문제, ▲ 따라서 이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학교는 결국 또 다른 특권 귀족학교가 될 수 있다는 의구심, ▲ 평가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있느냐의 문제, ▲ 평가는 수업방식 및 교육과정과 일체형으로 움직이는 바, 외국의 평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인해 자국의 교육과정이 외국 평가 기구에 의해 식민화되는 것에 대한 의구심, ▲ 평가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과정에서 교사의 평가권이 제약을 받는 것에 대한 교사들의 교권 약화, ▲ 논서술 평가의 도입에 따른 국민적 혼란으로 논술형 사교육시장이 확대될 것에 대한 걱정, ▲ 이미 혁신학교 등에서 평가의 혁신을 위한 대안적 활동을 하고 있는 마당에 외국 평가제도를 수입함으로써 국내 혁신 교육의 성과를 잠식하는 것에 대한 정서적 거부감 등, 사실 이에 대한 비판은 끝도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단체는 그간 이와 관련된 공식적 논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급한 것은 입시 경쟁의 완화 문제인데, 그 문제를 푸는 것이 선행되지 않은 가운데 논서술 평가 문제를 다루게 될 경우, 엉뚱한 부작용이 생길 것 같은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IB는 이미 현실적으로 피해갈 수 없는 의제이며, 또한 2022 대입시처럼 단기적 대입제도의 논의가 물거품이 된 상황에서 보다 근본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입제도를 설계해야하는 마당에,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은 이제 때가 왔다고 보았습니다.

물론 우리 단체는 아직도 이 정책에 관련해서 어떤 입장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더 미루지 않고 이젠 이 주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룰 때, 우리는 두 단계의 접근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IB가 ▲ 지금 부실하기 짝이 없는 전근대적인 교실 수업을 혁신할 수 있을까? ▲ 미래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의 역량을 키워낼 제대로 된 대입제도로 기능할 것인가? ▲ 이와 관련해 논술 사교육 부담을 늘리고 양극화를 심화시키지 않을 것인가? 이 세 가지 기준에 의해서 제도의 타당성을 검토할 것입니다. 둘째, 이 과정을 거치고 난 후에는 한국의 현실 속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난점은 무엇이고 그 정도는 어느 정도 심각한가, 안착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이를 검토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검토된 후 우리는 최종적으로 이 제도에 대한 단체의 입장을 정리해서 사회적으로 발표할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첫 번째 단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토론할 계획이며 두 번째 단계는 4월 18일 3차 토론회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IB 외에 국가와 학교 평가 제도를 현재에서 ‘논서술 평가’ 형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또 다른 대안을 갖고 있는 이들을 찾고 그들의 의견도 경청하고자 합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의 아이디어인가 보다는 과연 그 제도가 현재 교착상태의 한국교육을 바꾸어낼 수 있는가라는 점이며, 오직 그와 관련해서만 논의를 집중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9. 4. 11.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목 차

발 제

- 제 1 발제: 이해정(교육과혁신 연구소장) 1
“대한민국 평가 패러다임의 전환 - 시험을 바꿔야 교육이 바뀐다”

토 론

- 제 1 토론: 김진우(세종과학고 교사,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 35
“IB 토론문”
- 제 2 토론: 이성대(신안산대학교 교수) 41
“IB 도입보다 학교평가의 신뢰를 높여야”
- 제 3 토론: 전대원(위례한빛고 교사) 51
“평가 패러다임의 전환, 왜 IB이어야 하는가?”
- 제 4 토론: 전정원(전안장통합논술학원 원장) 57
“바람직하나 실현가능성이 낮은 IB,그 대안으로 서술형 대학수학능력시험”

■ 제1발제

대한민국 평가 패러다임의 전환 - 시험을 바꿔야 교육이 바뀐다

[서울대에서는 누가 A+를 받는가], [대한민국의 시험]
저자 이 혜 정 (교육과 혁신 연구소장)

- 목 차 -

1. 세계의 대학 입시 비교
2. 일본의 교육혁명
3. 한국의 교육혁신을 위한 IB 한국어화 및 공교육에 시범 도입

2022년 대입정책 결정을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로, 국가교육회의는 대입특위와 공론위로, 결국 국민에게 떠넘겼다. 객관식 수능이 가장 공정하다는 입장과 학종이 교육적으로 더 타당하다는 입장 간의 갈등이 연일 보도됐다.

예상대로 승자 없는 싸움이 되었다. 객관식 상대평가 수능으로는 미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공정해도 이길 수 없다. 학종은 아무리 교육적으로 더 타당하다 하더라도 중하위권에게 사실상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현 상태로는 공정 명분을 이길 수 없다. 양쪽 다 치명적인 단점이 있기 때문에 소모적인 논쟁만 하다가 획기적인 변화 없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했었다. 누가 이기든 현재의 평가 내용이 패러다임적으로 변하지 않는 한 어차피 길러지는 능력은 같을 것이고 그리하여 4차산업혁명 대비할 역량을 기를 수 없는 것은 동일하지 않은가? 2022년 이후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답도 없는 이 싸움을 매년 공론에 붙일 것인가?

대입제도는 무엇을 얼마나 반영하는지의 비율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는 학생이 있게 마련이다. 그런데 아예 교육의 방향 자체가 틀렸으면, 그 교육체제에서 성공한 집단도 이 시대에 더 이상 성공이 아니라면, 논의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우리 아이들과 사회의 '미래'를 위해 우리 교육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해외 선진국의 대학입학시험 내용을 비교분석하고, 특히 우리와 유사한 객관식 집어넣는 교육 패러다임이던 일본이 최근 어떻게 교육혁명을 진행하고 있는지 살펴본 후, 한국 공교육 패러다임 혁신을 위해 IB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의 가능성 및 과제를 논의하기로 한다.

1. 세계의 대학 입시 비교

2015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재상은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다. OECD나 세계 미래학자들도 21세기 역량에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 의사소통 능력, 협업능력(4C: Critical Thinking, Creativity, Communication, Collaboration)” 등을 빠짐없이 강조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수능과 내신 시험으로는 이런 능력을 기를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역량은 집어넣는 교육만으로는 결코 기를 수 없다.

각국의 대입시험 문제만 펼쳐놓고 비교해 봐도 그 나라가 무슨 능력을 기르고자 하는지가 한눈에 비교된다. 이 장에서는 타당성과 공정성이 수십 년간 검증된 영국의 에이레벨, 프랑스의 바칼로레아, 독일의 아비투어, 미국의 AP/SAT/ACT, 국적이 없는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이하 IB)를 비교 분석해 보기로 한다. 각 대학입학시험마다 총 몇 과목을 선택해야 하는지, 시험 기간과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내신 반영의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누가 주관하는지 등은 약간씩 차이가 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학생들에게 어떤 능력을 기르고자 추구하는지는 상당히 일관된 유사점이 있다. 간략히 몇 개의 샘플 문제를 먼저 보자.

가. 영국

에이레벨(A-LEVEL)은 Advanced Level의 줄임말로, 고2末에 AS(Advanced Subsidiary) 시험

과 고3 末에 A2 시험을 치르는 것으로 구성된다. 영국은 중등학교졸업자격시험(GCSE: Graduate Certificate of Secondary Education)을 고1 末에 보게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GCSE를 통과하면 A-Level을 치를 자격이 주어진다. 최근에는 에이레벨 총점에서 AS의 비중을 줄이고 A2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영국의 국가교육과정 및 대입시험인 에이레벨의 역사 시험문제의 예시를 아래에 제시한다. 90분 동안에 아래 문항 중 10점짜리 문제 하나와 20점짜리 문제 하나를 골라서 쓰는 방식이다. 전과목이 논서술형 절대평가이고 선다형 객관식 시험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대입시험에서 모두 이런 방식의 시험을 보기 때문에 교실에서는 당연히 이러한 시험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수업을 한다. 시험문제 출제는 캠브리지 등 공인된 기관에서 주관하고 채점은 교사들 중에서 차출해서 진행한다.

- 산업화가 중산층에 왜 그렇게 큰 영향을 미쳤는가? (10p)
- 1912년 대선에서 루스벨트가 왜 패했는가? (10p)
- 19세기 말까지의 정치구조에 산업화가 왜 그렇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지, 2개 국가의 사례를 들어, 그 이유를 평가하시오. (20p)
- "히틀러의 대외 정책은 독일의 1차 대전 패배를 복수하고 싶은 원한에 기반했다."는 주장에 대해 당신은 얼마나 동의하는가? (20p)

영국은 이 장에서 소개되는 다른 서구 선진국들과 달리 제너럴리스트보다 스페셜리스트를 기르고자 하는 교육 철학의 경향이 강하다. 그래서 옥스퍼드 캠브리지를 비롯한 영국의 대학은 교양과정 없이 전공과정으로만 3년 동안을 공부하게 되어 있다. 영국의 대학은 부전공이나 복수전공 혹은 전과가 거의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처음 입학할 때 지원한 학과의 전공 과목만을 심층 공부하는 형식으로 커리큘럼이 짜여 있다.

이러한 교육철학이 대입준비과정인 에이레벨에도 반영되어 있다. 다른 선진국들의 교육과정에 비해 에이레벨은 선택해야 할 과목 수가 가장 적다. 3과목만 선택해도 명문대 진학이 가능하다. 예컨대, 공대를 지원하는 학생은 수학, 물리, 화학만 선택하고 언어나 사회과학 과목을 전혀 선택하지 않고도 대학 갈 수 있게 되어 있다. 대신 선택과목이 적기 때문에 선택한 과목에서는 매우 심도 있는 수준을 요구한다. (과목의 선택과 집중은 고 2,3에만 해당된다. 고1 末에 치르는 GCSE는 과목이 많다.)

그런데 몇 과목을 선택하든 간에 영국의 에이레벨도 프랑스, 독일, 미국, IB와 마찬가지로 객관식시험 전혀 없이 전과목 절대평가 논서술형으로 집어넣는 교육을 넘어 꺼내는 수업을

하고 이를 궁극적으로 평가한다. 우리는 이 점에 주목해야 한다.

나. 프랑스

프랑스 바칼로레아는 대입시험이기 이전에 고등학교졸업자격 시험이다. 시험출제는 1년 이상이 걸린다. 교육부가 전국의 각 시도교육청에 시험 출제를 의뢰하면, 각 교육청에서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육부와 교육청의 담당자가 공동위원장으로 맡는다. 고등학교 교사들이 위원으로 차출되어 출제를 하는데 여러 문제들 중 최종 문제는 교육감이 선택하고 공동위원장이 승인하는 형식으로 결정된다. 즉, 주관 및 관리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함께 하고 시험출제 및 채점은 교사들이 담당한다. 바칼로레아 시험의 예시를 아래에 제시한다.

■ 인문학

- 철학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
- 역사는 인간에게 오는 것인가 아니면 인간에 의해 오는 것인가?

■ 자연과학

- 현실이 수학적 법칙에 따른다고 할 수 있는가?
- 생물학적 지식은 일체의 유기체를 기계로만 여기기를 요구하는가?

■ 사회과학

- 권리를 수호한다는 것과 이익을 옹호한다는 것은 같은 뜻인가?
- 권력 남용은 불가피한 것인가?

전과목 논술형 절대평가이고 객관식은 없다. 대입시험도, 평소 내신도 이러한 시험문제를 풀고 이에 대한 수업을 한다. 일반 대학 진학시에는 내신이 반영되지 않고 바칼로레아 시험 점수만 제출하고 입학할 수 있다. 프랑스는 20점 만점인 바칼로레아에서 10점 이상이면 대학에 갈 수 있다. 그러나 입학이 쉽다고 해서 졸업까지 쉬운 건 아니다. 또한 입학이 쉽다고 해서 대학이 평준화되어 서열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오해다. 대학 중에서도 인기학과인 의대나 법대의 경우 1학년 지나고 30~70%가 탈락한다. 의대 같은 경우 최종 졸업률은 10% 정도 되는 곳도 많다. 또한 내신 상위 15~20%의 학생들은 그랑제콜에 입학하기 위한 입시 교육기관인 프레빠에 진학하려고 매우 치열한 경쟁을 한다. 프레빠에 입학할 정도면 바칼로레아 점수 17점 이상은 될 수준인데 바칼로레아 점수로 변별하지 않고 내신점수로 심사 받아 입학한다. 프레빠에서 2~3년 간의 공부를 한 학생들은 치열한 경쟁을 뚫고 프랑스의 지도층을 양성하는 그랑제콜에 입학한다. 즉 '대학'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고등교육기관은 평준화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프랑스는 사실상 고등교육기관이 대학 이외에 상위

권 학생들이 진학하는 프레빠도 있고 그랑제콜도 있기 때문에 고등교육입학체제를 논할 때 대학만으로 국한해서는 합당하지 않다.

최근 마크롱 정부에서 바칼로레아를 포함한 교육개혁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바칼로레아식 평가와 교육 내용을 질적으로 바꾸겠다는 것이 전혀 아니고, 현재 대학입학 지원자가 많을 경우 입학시 추첨을 하고 있는 현행 방식이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오랜 비판을 고려하여 시험 과목의 수를 조정하고 대학에 입학생 선발권을 주고자 하는 등 보다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취지인 것이다. 즉 우리에게 익히 알려져 왔던 바칼로레아식 시험문제 자체를 바꾸겠다는 것이 아니라, 꺼내는 교육은 견지하면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다. 독일

독일의 대입시험인 아비투어는 영국의 에이레벨이나 프랑스 바칼로레아와 달리 내신이 주요 비중으로 아비투어 총점에 포함되어 있다. 내신이 2/3, 수능이 1/3 반영된다. 보통 답안지가 A4로 16장씩 되기도 해서 시험시간도 3~4시간 이상 걸린다. 35%에 해당하는 외부시험도 일선 교사들이 출제하는 문제 중에 선정되기 때문에 학교의 교육과정과 그거 벗어나지 않는다. 채점은 해당 학생의 담당교사가 1차로 채점하고 다른 교사가 2차 채점하는 교차채점을 하는데, 지금까지 교사의 채점 부정사례가 제기된 적은 거의 없다. 독일은 일찌감치 고교학점제와 문·이과통합을 실현해 왔다. 아비투어 시험과목은 총 4-5과목을 선택하며, 한 주에 한 과목만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시험기간이 총 한달 가량 걸린다. 독일 역시 대학은 평준화되어 있어서 입학이 어렵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인기학과는 당연히 경쟁이 치열하고 입학 후 재학 중에도 탈락하는 경우가 많다.

아비투어 역시 전과목 논술형 절대평가이고 객관식 선다형은 존재하지 않는다. 아비투어는 수능은 전과목 논술 절대평가이고 내신은 논술형 및 수행평가로 절대평가 하는 시스템이다. 아비투어는 문제의 난이도가 우리나라 수능보다 훨씬 높고 특히 수학 과학은 매우 깊이 있는 공부를 해야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독일 국민은 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특히 평균적인 영어구사력이 매우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외국어로서의 영어를 어떻게 교육시키는지 시험문제의 예시로 살펴보자. 아비투어 외국어(영어) 시험은 270분 동안에 여러 문제를 푸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하에서는 택일하여 쓰는 작문 문제 일부를 제시한다.

영어(외국어로서) 시험

- 교육부장관을 인터뷰하려는 팀의 대변인으로 당신이 선발되었다. "학교는 어느 정도로 우리의 인생을 준비해주고 있나?" 라는 주제에 대하여 인터뷰 문안을 작성해 보시오. 당신의 인터뷰 문안은 직접 질문이나 제안 모두 포함할 수 있다.
- 유럽 의회 대표에게 당신과 당신 세대가 걱정하는 이슈들에 대한 편지를 써 보시오. 가능한 해결책도 제안해 보시오.
- 학교폭력은 지난 몇 년 동안 증가해왔다. 유력 일간지에 그 원인과 효과를 분석하는 신문 기사를 써보시오.
- "부모는 성인의 나이에 이른 자녀의 의사결정에 어느 정도로 관여할 권리 혹은 의무가 있는가?"에 대하여 쓰시오.

독일에서도 내신이든 수능이든 어떠한 평가에서도 객관식 정답찾기 상대평가는 존재하지 않고, 전과목 절대평가 논술형과 수행평가로만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영국, 프랑스, IB와 동일하다.

라. 미국

미국의 대입시험은 SAT, ACT, AP가 있다. SAT는 연간 7회, ACT는 연간 6회 보는 자격고사화되어 있는 시험으로, SAT(Scholastic Aptitude Test)는 미국의 대학관계자들이 만든 비영리민간단체인 College Board에서 시험출제를 하고 ETS(Educational Testing Service)가 채점하는 시험이다. 미국 대입에서 SAT와 같은 기능을 하는 ACT(American College Test)는 같은 이름의 비영리단체에서 주관하고 있다. SAT, ACT 모두 몇 번을 봐서 잘 나온 점수를 선택할 수 있으며 둘 중 하나의 점수만 있으면 된다. 시험문제는 주로 선다형 객관식 문제이지만 에세이 시험이 별도로 있다. 주요 대학들은 에세이 시험이 포함된 점수를 선호한다. 한편 SAT, ACT, AP 모두 절대평가이다. 다만 SAT와 ACT는 연간 시험 횟수가 여러 번이다 보니 매 시험마다 난이도가 약간씩 차이가 날 수 있어서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오답의 갯수가 같더라도 점수는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

AP(Advance Placement)는 College Board에서 주관하는 대학과정의 선이수 인증 시험이다. AP 시험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받으면 대학에서 학점으로 인정해 준다. 미국의 SAT, ACT, AP는 유럽권 국가들과 달리 긴 논술형 시험이 아니고 객관식과 단답형 및 짧은 에세이로 이루어지는데, 그 때문에 사교육 훈련을 받으면 효과를 보기도 한다. SAT, ACT, AP는 모두 과정 이수에 대한 의무 없이 볼 수 있는 '시험'이다. AP는 본래 AP 과목을 학교에 개설해서 개별학교들의 수준을 올리려는 목적도 있었는데, 실제 학교 수업을 듣지 않고 그냥 혼자

공부하거나 온라인 강좌를 수강하는 방식으로 준비를 해도 시험을 치르는데 아무 문제 없다. 과정을 평가하지 않고 시험으로 평가하려는 이 취지는, 미국이 유럽국가들과 달리 땅이 매우 넓고 주마다 다른 가치와 특색을 지니는 연방정부이다보니, 혼자서 공부하는 홈스쿨링하는 사람들에게도 불리하지 않도록 '과정'이 평가되지 않아도 단독으로 치를 수 있는 '시험'으로 제도화한 것이다.

다만, 미국 대학입시에서는 이러한 AP, SAT/ACT 점수 이외에 내신점수와 각종 비교과활동들이 매우 중요한데, 내신의 평가는 유럽국가들과 같이 대부분 논술형과 수행평가로 이루어진다. 특히 상위권 대학에서는 내신과 비교과활동이 SAT/ACT 점수보다 훨씬 결정적이다. 따라서 미국의 대입시험들이 선다형 위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서 미국의 학교 수업이 우리나라와 같이 객관식 정답찾기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미국은 대입에서 매우 중요한 내신은 대다수가 논술형 평가와 수행평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업 자체의 모습은 유럽권 학교들과 비슷하게 집어넣는 교육을 넘어 꺼내는 교육을 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참고로 미국에서도 IB 학교들이 다수 있는데, IB 학생들은 별도로 AP를 하지 않고 IB 이수 과목(특히 고급수준(HL) 과목)이 AP과목처럼 대학에서 학점으로 인정받는다. 다만, IB 학생이라도 SAT나 ACT 중의 하나는 반드시 치러야 하는데, IB에서 상위권인 경우는 별도의 공부를 따로 하지 않아도 ACT나 SAT에서 고득점을 쉽게 얻을 수 있다.

마. IB(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

IB는 국적이 없다. 어느 한 국가의 교육과정이나 평가가 아니다. 스위스에 본부를 두고 영국에 채점센터를 두며 전 세계에 지역별로 지사를 두고 있는 비영리교육재단에서 개발 운영하고 있는 교육과정 및 대입시험이다. 고등학교 과정은 1968년부터 개발 운영되어 왔는데, 교육적 우수성과 채점의 엄정성이 널리 알려져서 전세계의 주요 대학들에서 대입시험으로 오랫동안 인정해 왔다.

45점 만점으로 구성된 대입시험은 고급수준 3과목, 표준수준 3과목에 더하여 소논문, 인식론 철학논문, 창의체험활동이 필수요소로 이수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고급수준 과목들은 미국 대학 진학시 AP처럼 학점으로 인정해 준다. 평가는 전과목이 논술형 시험이고 수행평가가 포함되며, 아비투어처럼 최종 총점에 내신점수가 포함(과목별로 비율은 다름)되어 있

다. 내신과 외부시험(수능) 모두 절대평가이다. 표준화된 45점 중에 내신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내신 부풀리기 같은 영향이 없도록 내신 평가 중 일부를 무작위 검토하여 부풀리기 등이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그 학교 전체 내신점수를 내리는 방식으로 내신을 조정한다.

이처럼 IB는 학교 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수행평가와 논술형 과정 평가인 내신이 총점에 함께 반영된다는 점에서, 내신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마지막 시험 점수만 제출하게 되어 있는 프랑스 바칼로레아와 이름이 비슷하지만 내용은 전혀 다르다.

위의 다른 대입시험들은 국가차원에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입에 시험 점수 외에 무엇을 얼마나 반영할지 국가별로 패턴이 있으나 IB는 특정 국가교육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점수를 어떻게 대입에 반영할지는 국가별로 대입별로 상이하다. 예컨대 대입에서 에이레벨 점수만을 심사하는 영국 대학의 경우는 IB 점수만으로 학생을 선발하기도 하지만, 내신과 각종 비교과활동을 중시하는 미국 대학의 경우는 IB 점수 이외에도 학생들의 비교과활동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IB에는 에이레벨과 달리 소논문이나 창의체험활동과 같은 비교과활동이 교육과정에 필수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학생이 학교 밖에서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했던 소논문과 창의체험활동을 그대로 비교과활동으로 제출할 수 있다.

즉, 평가의 제도로만 보면 비교과 없이 내신과 수능으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대입의 기본인 단순성, 명료성, 일관성을 확보하고 있고, 내용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학종에서 추구하는 여러 가치 있는 비교과활동과 평가들이 내신에 정량화되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학종 이상의 타당성을 갖추고 있으며, 그것이 원하는 일부 학생만 하는 것이 아니라 IB 교육 체제 하에 있는 모든 학생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학종보다 공정하다.

시험문제 예시는 다음과 같다. 시험지에는 여러 문항이 제시되지만 한 문제만 택하여 90~120분 동안 쓰면 된다. 참고로 IB에는 모국어로서의 한국어(한국문학 및 언어) 교육과정 및 평가가 운영되고 있다 (SAT나 프랑스 바칼로레아에 있는 한국어 시험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과목임).

■ 국어(2시간)

- 시간은 문학 작품의 중요한 주제이다. 시간은 ‘미래를 위한 희망’, ‘잃어버림과 슬픔’, ‘추억의 중요성’ 등 인간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공부했던 작품 중에서 시간의 중요성에 대해서 논하시오.

- 공부했던 작품에서 어떤 이유로 문학 작품은 허구임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추구한다고 말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 역사(90분)

- 전쟁이 사회 변화를 가속화시킨다는 주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두가지 이상의 전쟁 사례를 들고 이에 대한 의견을 쓰시오.
- "민주주의 국가의 정부 정책들은 부의 분배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는 말에 얼마나 동의하는지 논하시오.

바. 세계 교육 패러다임의 시사점

위의 대입시험들과 한국의 대입은 매우 다르다. 단순히 무엇을 얼마큼 반영하는 수준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아예 패러다임이 달라서 궁극적으로 길러지는 능력도 완전히 다르게 된다.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IB는 모두 기본적으로 집어넣는 교육을 넘어 꺼내는 교육을 한다. 저자의 생각, 교과서의 생각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무엇인지 스스로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을 평가에서 요구한다. 영국, 프랑스, 독일, IB는 대입시험이나 내신이나 모두 전과목 논술형과 수행평가를 하고 객관식 정답찾기는 전혀 없다. 미국의 대입은 선다형이 주를 이루기는 하나 내신은 절대적으로 논술형과 수행평가이기 때문에 미국의 교육 역시 집어넣기만 하는 교육과는 거리가 멀다. 각국의 대입시험을 비교 정리한 것이 아래 그림이다.

대입시험	형태	주관	채점자	산출	필터시기	내신	내신 반영	패러다임
영국 A-Level	전과목 논술형	중앙 (공인기관)	교사	절대평가	입학시 +재학중	논술형+수행평가	대입 미반영	꺼내는 교육
프랑스 바칼로레아	전과목 논술형	중앙(교육부 +교육청)	교사	절대평가	재학중	논술형+수행평가	프레빠 입학 시 반영	꺼내는 교육
독일 아비투어	전과목 논술형	주정부	교사	절대평가	재학중	논술형+수행평가	아비투어총점에 포함 반영	꺼내는 교육
미국 AP/ SAT/ACT	선다형 +서술형	중앙 (민간기관)	기계+ 채점관	절대평가	입학시 +재학중	논술형+수행평가	대입 반영	꺼내는 교육+ 집어넣는 교육
IB(국제)	전과목 논술형	중앙(IBO)	교사	절대평가	국가별로 다름	논술형+수행평가	IB총점에 포함 하여 반영	꺼내는 교육
한국 수능	전과목 객관식	중앙(교육과 정평가원)	기계	상대평가	입학때만	객관식+수행평가	전혀별로 다름	집어넣는 교육

그림 1. 세계의 대학입학시험 비교

1) “집어넣는 교육“을 넘어 “꺼내는 교육“ 평가

위의 [그림 1]에서 한국만 뚜렷이 차이가 나는 점은 대입시험인 수능이 전과목 선다형 객관식 상대평가라는 점, 그리고 내신조차 객관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 그리하여 서구 선진국들의 교육은 모두 집어넣는 교육을 넘어 꺼내는 교육 패러다임인데, 한국만은 여전히 집어넣는 교육에 머물고 있다는 점, 그리하여 전국의 학생들에게 길러지는 역량이 선진국 학생들과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이다.

대입제도는 무엇을 얼마나 반영하는지의 비율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는 학생이 있게 마련이다. 그런데 아예 교육의 방향 자체가 틀렸으면, 그 교육체제에서 성공한 집단도 성공이 아니라면, 논의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위의 [그림 1]에서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대학입시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보다 합당하게 집어넣는 교육을 넘어 꺼내는 교육의 패러다임을 견지하고 있다.

집어넣는 교육도 여전히 필요하지 않냐라고 항변할 일이 아니다. 집어넣는 교육을 전혀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집어넣는 교육에만 평가가 그치게 하지 말자는 것이다. 우리는 집어넣는 교육만으로 100% 시험 보는 내용을, 저들은 25%~50%만 평가한다. 나머지 더 큰 비중이 꺼내는 능력 평가이다. 저들의 교육체제 하에서는, 학생들은 저자의 생각과 교과서의 정답만을 반복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다른 생각을 하도록 끊임없이 요구받고 훈련하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거치고 난 후의 길러지는 능력이 우리 아이들과 달라지게 될 수밖에 없다. 치열한 경쟁 자체보다 더 큰 심각한 문제는 그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성공한 아이들조차 세계적인 경쟁력이 거의 없다는 것, 이것은 곧 나라의 미래 운명이 걸린 심각한 이슈이다.

배움은 어렵고 치열하다. 각 단계마다 절망을 느끼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한다. 학생들이 그 과정을 이겨내도록 그래서 지적으로 훌쩍 성장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교육의 역할이다. 학생들이 지적 성장이 없다면 그것은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라 보기 어렵다. 행복을 추구한다는 명분으로 학교가 학생들의 지적 성장을 저버린다면 학교는 더 이상 교육 기관이 아니라 그저 보육기관일 뿐이다. 그런데 어떤 종류의 지적 성장인지 그 본질적 내용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심도있게 고민을 해 봐야 한다.

선진 지식을 일단 무조건 흡수하고 보자는 수용적 학습은 우리가 후진국에서 열심히 선진

국을 따라잡아야 했던 추격형 산업구조에서는 효과를 발휘했다. 그러나 이제 우리도 선진국 대열에 올라서고 있는 시점에 과거에 성공적이었던 교육방식만으로는 더 이상 도약할 수 없다는 진실을 직시해야 한다. 과거 학력고사를 치렀던 부모 세대들이 자신의 일부 경험만을 바탕으로 다시 학력고사로 회귀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이미 산업구조와 시대가 변한 시점에서 앞으로 나아가지 말고 뒤로 후퇴하자는 것과 같다. 위의 그림에서 보듯이, 서구 선진국은 대부분 전과목에서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을 기르고 꺼내는 교육을 하고 전과목에서 대규모 논술형 대입시험을 치러도 채점의 공정성 문제 없이 수십 년 간을 잘 운영해 왔다. 그리고 저 나라들의 교육이 앞으로도 객관식 시험으로 바뀔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이쯤 되면 우리의 교육이 어느 방향으로 변해야 하는지 분명해진다.

2) 선진화된 입시와 내신으로 공정성과 타당성 확보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IB 모두 표준화된 입학시험을 대입에 반영한다. 즉 우리처럼 수능 없이도 입학할 수 있는 전형이 없다. 독일과 IB는 내신을 입시 총점에 반영하고, 미국은 내신을 별도 제출하여 비중있게 평가하며, 프랑스도 상위권 학생들이 가는 프레빠는 내신으로 뽑는 식으로 대부분 내신도 중시한다¹⁾. 내신 없이 수능 점수로만 가는 전형은 보편적인 것이 아니다. 선진국들이 이처럼 입시와 내신으로 대입을 결정하는 것은 이것이 가장 공정하면서 학교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 국가의 고등학교에서는 입시위주의 교육을 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학교교육이 가장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입시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입시위주의 교육과 공교육 정상화/내실화는 동일한 의미가 된다. 예컨대 IB의 경우를 형태만으로 보면 학종의 비교과 없이 수능과 내신으로만 구성된 형태이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소논문, 지식론철학논문, 창의체험활동 등 학종에서 추구하는 활동들이 커리큘럼 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추구하는 교육적 가치는 학종에 가깝다. 그럼에도 이것을 일부 학생만 하는 것이 아니라 IB를 하는 모든 학생들이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회의 균등 차원에서 학종보다 훨씬 공정하다.

공정을 주장해서 수능으로 뽑자고 하려면 반드시 수능의 문항을 선진화해야 하는 과제가 전제되어야 하고, 타당을 주장해서 학종으로 뽑으려면 반드시 내신의 시험과 내용이 선진화되면서 모든 아이에게 기회가 갈 수 있도록 공정과 타당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결국

1) 내신 없이 입학시험 점수만 제출하는 영국의 경우, 옥스퍼드, 캠브리지는 면접으로 대다수를 탈락시킨다.

공정과 타당을 모두 잡아야 하는 차원에서 보면 어느 쪽에서 접근을 하든 목표는 같을 수 있다. 수능 혁신의 원리는 서구 선진국들처럼 “꺼내는 교육을 평가하는 논술형²⁾으로의 변화이고, 내신 혁신의 원리는 교사의 수업 및 평가에 대한 규제를 혁파하여 기존에 비교과로 하던 활동 중 유의미한 핵심 활동을 아예 필수 과정으로 포함시키고 시험도 논술형+수행평가로 꺼내는 교육을 평가하게 하여 선진화하는 것이다.

수능과 내신을 선진화하는 방향은 사교육에도 영향을 미친다. 대입의 이정표가 사교육 억제책으로부터 시작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미래를 향한 올바른 방향인지의 타당성 검토와 함께 반드시 공정성에 대한 문제도 검토해야 하는데, 아무리 옳은 방향이라도 특정 집단에게만 기회가 주어지거나 지금처럼 사교육 비용을 더 쓸수록 공교육에서의 성적이 높아진다면 이것은 공교육이 제 기능을 상실한 것이다. 따라서 대입의 내용적 구조는 타당하고 올바른 미래역량 교육을 반드시 “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구조화해야 한다. 사교육의 존재 자체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사교육 비용을 더 많이 쓸수록 공교육에서 성적이 높아지는“ 이 기형적인 구조를 타파해야 한다. 이 장에서 살펴본 서구 선진국들의 교육에서 사교육이 우리만큼 과열되지 않는 이유는, 내신과 수능을 포함한 그들의 평가가 매우 수업 밀착형이기 때문이다. 그들 대부분 정해진 교과서도 없다. 어느 교재를 선택하든, 어떠한 내용을 가르치든, 어떤 진도로 가르치든, 전적으로 교사에게 달려 있다. 즉 교사마다 다른 진도와 다른 형태로 가르치기 때문에 획일화되어 규모의 경제성이 가능한 사교육시장이 형성되기 어렵다. 물론 저 나라들도 사교육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교육은 우리처럼 단순반복 문제풀이 학원이 아니다. 저 중에서 가장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것이 그나마 미국의 AP-SAT(ACT)인데 이게 사교육이 활성화된 이유도 객관식 문제은행방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교육도 우리와 같은 내신반은 존재하지 않는다. 유럽국가들처럼 교사별 수업밀착형 꺼내는 교육을 하기 때문이다.

수능, 내신, 논술, 비교과를 다 따로 준비해야 하고 그것도 학교에서 해주지 않아서 사교육에 의존해야 하는 구조가 아니라, 영국, 프랑스, 독일, IB처럼 학교에서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평가하는 전과목 논술과 수행평가로 내신과 수능을 구성하고 별도로 수능과 내신과 논술을 따로따로 공부하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죽어라 노력하고도 엉뚱하고 쓸모없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각자의 미래 대비를 할 수 있는 타당하고 공정한 교

2) 기존의 한국의 논술 시험은 출제자의 의도와 채점자의 기대를 파악해서 써야만 하는 사실상 정답이 정해져 있는 또다른 종류의 객관식일 뿐이라는 학생들의 비판이 지속되어 왔다 (매일경제, “‘암기 잘하는 1등급, 창의력은 7등급’, 2017.6.26.일자 보도).

육이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3) 탈락 시점 분산

위의 [그림 1]에서 또 하나 차이가 나는 것은, 대량의 탈락 사태가 일어나는 시점이다.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상대적으로 대학을 쉽게 입학하지만 재학 중에 무더기로 탈락한다. 프랑스 대학 중 인기 있는 의대 같은 경우는 입학생의 10%만이 졸업을 하기도 한다. 지원자가 많은 공대나 법대 같은 경우도 입학 시에는 추첨을 해서 입학시키지만 1학년 지난 후 30%~70% 만큼이나 탈락을 하기도 한다. 진급에서 탈락한 학생은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다른 전공으로 바뀌서 학교를 다니게 된다. 미국과 영국의 대학들은 입학시에도 대량의 탈락이 이루어지지만 재학 중에도 상당히 탈락을 많이 시킨다. 독일과 프랑스만큼은 아니더라도 영미 모두 입학했다고 졸업을 보장하지 않는 시스템이다.

그런데 한국은 입학시에만 대량의 탈락이 이루어지고 일단 입학을 하면 큰 문제가 없는 한 졸업은 거의 보장된다. 그래서 입학 시점에 엄청난 경쟁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입학 때에만 대량 탈락을 시키고 재학 중에는 거의 탈락의 위험이 없는 제도보다, 탈락의 시점을 재학 중으로도 분산시키는 방법은 대입 경쟁을 완화하고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는 전략이 될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우리 교육의 문제와 유사한 위기의식을 갖고 교육혁명을 진행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2. 일본의 교육혁명

가. 일본이 공립학교에 IB 도입 결정한 배경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존의 주입식 획일식 교육으로는 더 이상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는 절박한 인식 속에서, 2012년 말 아베 신조 총리가 집권을 하자마자 국가 경제 재건을 위해 인재 재건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교육개혁이 신메이지 유신과 같은 국가 재건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추진되었다. 아베 총리는 2013년 1월 총리실 산하에 국가교

육재건설행위위원회를 설립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의 대해 국민들이 눈을 뜨고 그 교육 기회를 갖는 것”을 목표로 국가교육재건을 추진한다. 그리하여 2013년 6월에 2020년 수능(센터시험) 폐지를 선언했고 동시에 IB 교육과정을 자국어로 번역, 공교육에 도입하여 교육 대개혁의 모델로 확산시키기로 결정했는데, 이것이 문부과학성 결정이 아니라 각의(국무회의) 결정이라는 것이 주목할 점이다. 일본은 교육개혁을 단순히 교육계 차원의 문제가 아닌 국가 전체 차원의 미래전략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 교육이 추구하는 가치는 학습자 주도(active learning)의 꺼내는 교육(inquiry-based learning)이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IB 인증 공립학교는 정부가 선언한 대로 2020년까지 200개를 만들고 그 이상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IB는 연간 수천만 원씩 학비를 내는 국제학교나 외국인학교에서만 운영되던 교육과정이었으나, 일본 정부는 “경제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면서 이 교육과정 전체를 자국어로 번역하여 공교육에 무상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그런데 궁극적인 최종 목적은 IB 학교의 양적 확산이 아니라 국가 공교육 시스템의 본질적 개혁이다. 일본 공교육에는 20,000개의 초등학교, 10,000개의 중학교, 5,000개의 고등학교가 있다. 47개의 각 시도교육청 권역별로 IB 인증을 받은 시범학교가 설립되면 주변 학교들은 이 시범학교로부터 배우면 된다. IB 학교에서 4-5년을 근무하게 되면 베테랑 교사가 된다. 그 교사가 다른 학교로 가면 IB 교육을 퍼뜨릴 수 있고 수정 보완해서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도 있다. IB 교육은 기존의 주입식 교육보다 선진적이기 때문에 한번 IB 교육에 익숙한 교사가 되면 다시 기존의 주입식 교육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렵다. 일본의 공립학교 IB 교사들도 기존 교사가 IB 교사로 변할 수는 있어도 IB 교사가 다시 기존의 주입식 교사로 돌아가지는 않는다고 증언하고 있다. 일본은 이처럼 주변의 학교에서 IB 시범학교 교육을 참관하고 연수를 받으면 주변의 학교도 IB 인증교가 아니더라도 IB 방식의 교육으로 변화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하면 연간 약 10,000달러 내외의 IB 가입비용을 지불하는 인증학교를 만들어도 주변 학교에 파급효과가 상당하기 때문에 사실상 오히려 비용 효과적일 수 있다. 요컨대, 일본 공교육 전체의 개혁이 궁극적 목적이기 때문에, 일본 공교육의 IB 도입은 일본 공립학교 전체를 IB 인증학교로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200여 개의 IB 인증학교를 일본 공교육 전체 개혁을 위한 모델 학교의 역할로서 전략적 도입하겠다는 취지이다.

2017년 11월 1일 국회 미래일자리와 교육포럼 주최로 유이치로 안자이 일본학술진흥회 이사장(전 중앙교육심의회 의장)이 “일본 교육과 대입의 대개혁“에 대해 발표를 했다. 일본이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교육, 고교교육, 대학입시, 이렇게 세 분야에서 그야말로 완전히 판을 바꾸는 교육혁명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발표였다.

그 중 핵심은 대입혁명이다. 대입이 제대로 개혁되면 고교교육과 대학교육이 자연스럽게 개혁된다고 지적했다. 공교육 목표가 수행, 태도, 역량인데 기존의 대입은 수행만 측정하고 태도와 역량 평가가 안됐었다면서, 일본 문부과학성은 비판적 창의적 사고 역량 평가를 위해 수능에 논서술형 도입을 결정했다. 방법론 중 하나로 200개 공립학교에 도입되는 전과목 논서술형 시험인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IB)가 점점 호응을 얻고 있으며, 일본 내에서도 IB 인증학교가 목표했던 200개교 이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12년 대개혁 시작 당시에는 '과연 이게 실현가능할까?' 의구심으로 시작했지만, 장기적 로드맵을 먼저 제공하니 국민들 저항도 줄어들더라는 고백도 덧붙였다.

나. IB 지원 정책 및 현황

일본이 자국의 국가교육과정을 개혁하는 모델로 IB를 선택한 것은 수많은 심의와 검토 후의 결론이다. 전 세계의 우수하다는 교육과정과 평가를 모두 검토한 후 일본이 추구하는 '학습자 중심의 꺼내는 교육'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다고 판단된 부분도 있지만, IB는 특정 국가의 국가교육과정이 아니라는 점도 고려되었다고 본다. 영국의 에이레벨, 프랑스의 바칼로레아, 독일의 아비투어, 미국의 AP-SAT(ACT) 시스템 모두 해당 국가에서만 운영되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다른 언어로 번역되어 확산된 적이 없다. IB는 특정 국적이 없다는 특징도 있지만, 이 교육과정과 평가를 운영하는 공식 언어 자체가 영어, 불어, 스페인어 3개이고, 다른 언어로 일부씩 번역되어 활용되고 있던 중이었다. 즉 다양한 언어로의 확장성이 가능한 시스템이었던 것이다.

게다가 IB는 과목 수가 너무 적은 영국의 에이레벨 같은 문제가 없고, 내신을 고려하지 않는 프랑스 바칼로레아와 같은 문제가 없고, 객관식이 다수인 미국의 AP-SAT(ACT)의 문제가 없고, 해당 학교 교사가 1차적으로 채점하는 독일의 아비투어보다 완전히 외부인들이 교차 채점하는 IB 체제가 더 채점의 공정성과 엄정성을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시험 문제의 벤치마킹이 아니라 그러한 대입시험이 가능하도록 학교와 대입평가의 운영 시스템

을 참고하기 위해서는 IB가 더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IB는 기존의 수능과 내신의 공정성과 타당성 문제를 혁신하면서도 우리나라의 학종에서 추구하는 다양한 미래 담론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IB 도입은 일본의 교육 대개혁의 큰 그림 중 한 전략이다. 문부과학성에서는 우선 (1) IBO(IB 본부)와 제휴를 맺고, (2) 초·중고 전 교육과정 번역, (3) 교사연수, (4) 채점관 양성, (5) IB 인증학교 졸업생들의 대학입학 허용, (6) IB 교과를 국가교육과정의 교과로 인정 등과 같은 조치를 취했다. IB가 무엇인지 잘 모를 때는 우려하는 국민들도 있지만, 일단 IB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매우 긍정적인 호응으로 바뀌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IB 인증과정은 “IB인증관심학교→IB인증후보학교→IB인증완료학교”의 3단계를 거친다. IB 인증완료학교가 될 때까지 기간이 2~3년이 걸리는데, 그 전에는 IB교육이 가능한 형태가 되기 위해 교사들이 연수를 받고 수업이 바뀌고 학교의 체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기존의 교육체제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2018년 7월 현재 일본 내의 IB 인증완료학교가 59개교(27개 초등학교, 17 중학교, 41 고등학교)인데, 학교의 수는 59개교이나 1개교에 초/중이나 중/고 과정이 같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나라처럼 중학교 고등학교를 분리하면 전체 프로그램 합산은 85개교이다. 인증이 완료된 학교 중에는 공립보다 사립학교가 많은데 그 이유는 사립이 상대적으로 의사결정 절차가 빨라 먼저 인증이 추진된 것이고, 공립학교는 공청회, 설명회, 지역 의회의 승인, 인사 배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사립학교보다 인증 신청이 늦었던 것이다. 그러나 현재 인증 대기 중인 학교 중에 공립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인증을 기다리는 후보학교와 관심학교까지 포함하면 134개교가 현재 교육체제 변환에 이미 돌입했다. 인증완료학교는 명단이 공개되지만, 인증완료 이전 단계의 학교 명단은 공개되지 않는다.

2017년 5월 문부과학성의 “IB를 통한 글로벌인재 육성방안 전문가회의 보고서”에 의하면, 일본의 IB 도입의 첫째 목적은 “공교육 개혁의 롤모델”을 만드는 것이고, 둘째 목적이 그렇게 “개혁된 일본형 교육 모델을 해외에 역수출하자”는 것이다. 셋째가 “글로벌 역량의 인재 개발”이고 넷째가 일시적 붐으로 끝나지 않도록 “지속가능한 개혁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쿠코 츠보야 일본 문부성 국가교육재건실행위원회 위원 및 IB 일본 대사는 일본 교육대

개혁에 IB가 미친 영향은 메이지유신을 가능하게 한 흑선의 역할이라고 비유했다.

“그간 일본 교육에 대한 개혁 요구가 적지 않게 있어 왔지만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IB가 도입되면서 개혁 방법에 대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IB는 일본 교육 대개혁의 방향과 방법에 대한 롤모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IB는 일본 교육 대개혁의 전부는 아니지만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일본에서는 IB를 19세기 개항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던 미국 페리 제독의 흑선이라고 봅니다. 흑선은 일본에서 외부 충격을 기회로 삼아 내부 혁신을 성공시킨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1853년 미국 페리 제독이 흑선을 끌고 도쿄만에 나타나서 개항을 요구했고 이를 계기로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흑선이 오지 않았다면 일본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상상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단시간 내에 개혁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IB는 현 일본 교육의 대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는 흑선입니다.”

- 이쿠코 츠보야 일본 국가교육재건실행위원회 위원 및 IB 일본 대사

다. 시사점

2017년 3월 29~31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일본 교육혁명의 서막을 알리는 국제학술대회가 열렸다. 전세계 명문대들이 선호하는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이하 IB)의 세계학회를 일본에서 개최한 것이다. 33개국 1500여명이 참여했다. 일개 교육과정 학회임에도 왕실에서 나와서 축사를 했다. 아키시노 왕자가 미래세대 역량과 전인적 교육을 구현하는 세계적 수준의 IB 교육과정에 대한 신뢰와 일본에서의 도입에 대한 기대를 강조했고, 문부과학성에서는 IB의 공교육 도입을 200개 학교를 넘어 지속적으로 확산할 것을 선언했으며, 주최 지역 도지사는 저출산, 고령화,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할 인재 양성을 위해 IB 교육과정이 일본 국가교육혁명의 초석이 될 것임을 역설했다.

일본의 문부성 관계자들은 연간 수천만원의 학비를 내야 하는 국제학교에서나 받을 수 있었던 이 우수한 교육과정을 국가가 나서서 공립학교 학생들이 무료로 교육받게 한 것을 매우 자랑스러워 했다. 경제격차가 교육격차로 귀결되지 않게 해야 한다는 신념과 4차산업혁명 시대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나라의 인재를 길러야 한다는 절박함이 교육혁명의 서막을 올리게 했다 한다.

기조강연을 한 노리코 아라이 교수는 인공지능 로봇이 동경대 입시에 도전하는 프로젝트로

널리 알려진 수학자이다. 그녀는 2010년에 컴퓨터가 인간의 직업을 빼앗아 갈 것임을 예언하는 책을 냈는데, 출간 직후 서점에서 자신의 책이 비즈니스 섹션이나 IT 섹션이 아닌, SF 섹션에 있는 걸 보고 공포를 느꼈다고 한다. 4차산업혁명의 거대한 쓰나미는 몰려오는데 그 엄연한 '현실'을 'SF'로 바라보는 국민들의 인식이 너무 걱정돼서, 이들을 자각시키기 위해 2011년부터 동경대 로봇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한다.

처음부터 동경대 입시 통과가 목적이 아니라 일본 국민들에게 인공지능에 대한 경각심과 인공지능에 백전백패할 교육을 혁명해야 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이 목표였다. 프로젝트 시작 후 해마다 로봇의 합격 대학의 수준을 높여가면서 국민들의 눈을 뜨게 해주고 싶었다. 이제는 향후 10년~20년 이내에 인공지능 로봇이 동경대, 북경대, 아이비리그 등 세계적인 명문대에 합격하겠느냐는 질문에 일본 국민들 80% 이상이 그렇다고 답할 만큼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에, 아라이 교수는 얼마 전 로봇이 일본 전체 대입생들의 상위 25% 실력을 갖춘 상태에서 프로젝트를 멈췄다. 이미 목적 달성을 했기 때문이다.

4차산업혁명 인공지능 시대에 어떤 직업이 생겨날지 그 누가 정확히 알 수 있겠는가. 오늘날의 교육이 길러야 하는 능력은 지금은 없는 새로운 직업을 발굴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다. 그러자면 '결과'를 가르치는 교육에서 '과정'을 가르치는 교육으로, '집어넣는' 교육에서 '꺼내는' 교육으로, '문제해결력'이 중심인 교육에서 '문제발굴력'이 중심인 교육으로, 그리하여 '지식 소비자'가 아닌 '지식 생산자'를 기르는 교육이어야 한다. 인공지능이 미처 하지 못하는 그 이상의 상상과 통찰을 해내며 인공지능과 공존해 나가는 인재를 길러야 한다.

일본의 교육혁명은 이미 시작되었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나? 구한말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할 때 젊은이들을 뽑아 선진 문물을 배워오게 했고, 그렇게 시대를 읽는 눈으로 근대화를 우리보다 먼저 했다. 거대한 시대의 변화를 “늦게” 읽어 나라를 빼앗겨야 했던 역사의 어리석음이 결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3. 한국 교육혁신을 위한 IB 한국어화 및 공교육에 시범도입

가. IB란 무엇인가

IB는 1968년도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 등 국제 기구 주재원, 외교관 자녀들이나 해외 주재 상사 자녀들을 위해 개발되었다. 이런 아이들은 어느 한 국가에서 만든 국가 교육 과정을 진행하는 학교를 안정적으로 다니기 어렵다. IB는 그들에게 어느 국가에서도 유용할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하자는 취지로 민간 비영리 교육 기관에서 개발된 교육 과정 및 대입 시험 체제다.

비영리 교육 재단인 IB본부(IBO; International Baccalaureate Organization)에서 IB를 총괄하고 있는데, 스위스에 법적 본부가 있고, 네덜란드에 실무 본부가, 영국에 체점 센터가 있다. 아시아태평양본부는 싱가포르에 있다. IB본부IB본부는 전 세계를 유럽과 아프리카 중동 권역(IBAEM),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아시아 태평양 권역(IBAP), 남북 아메리카 권역(IBA)의 세 권역으로 나누어 관리, 운영하고 있다. 2018년 12월 현재 전 세계 153개국 이상의 4,964개에서 6,453개의 IB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북미 쪽이 압도적으로 60% 가량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유럽과 아프리카 중동 권역에 많으며, 아시아 태평양 권역에서도 최근 그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IB본부에서는 교육과정 개발, 학생 평가, 교사들의 연수와 전문성 개발, 개별 학교에 대한 인증과 평가 업무를 담당하면서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매년 위 세 권역별로 전체 회원 학교 구성원들 간의 글로벌 컨퍼런스를 열어 교육 철학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교육 활동에 관한 정보를 나눈다. 공식적인 교사 연수를 전 세계 곳곳에서 연중 내내 수시로 실시해서 소속 교사들의 수업 운영 및 평가를 위한 질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IB에는 총 4가지 프로그램이 있다. 초등학교 프로그램(PYP: Primary Years Program), 중학교 프로그램(MYP: Middle Years Program), 고등학교 과정인 디플로마 프로그램(DP: Diploma Program), 직업 교육 프로그램(Carrer-related Program)이 그것이다. 이 중 고등학교 프로그램은 대학 입시와 관련된 프로그램이라 가장 밀도 있게 운영되어 온, 1968년부터 역사적으로 검증된 프로그램이다. 중학교 프로그램은 1994년에, 초등학교 프로그램은 1997년에, 직업 학교 프로그램은 2012년에 개발되었다. 전 세계에서 2017년에 고등학교 과정인 디플로마 프로그램의 시험이 치러진 수는 671,874건이다. IB에서 기르고자 하는 인재상은 다음과 같다.

IB 인재상(Learner Profile)

Inquirers	탐구적 질문하는 사람
Thinkers	생각하는 사람
Principled	원칙과 소신이 있는 사람
Caring	남을 배려하는 사람
Reflective	성찰하는 사람
Knowledgeable	필요한 식견을 갖춘 사람
Communicators	소통할 줄 아는 사람
Open-minded	열린 마음을 지닌 사람
Balanced	균형을 갖춘 사람
Risk-takers	위험을 감수하고 도전하는 사람

나. 한국어화를 추진하는 교육청들

최근 몇몇 지역 교육청들은 교육 패러다임적 혁신을 추진해 왔다. 시작은 2017년 여름 수업/평가 혁신 방안으로 IB를 공교육에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자는 서울시 교육청의 연구 제안부터였다. 서울시 교육청의 IB 프로젝트가 진행되자 2017년 하반기에 제주도 교육청에서는 아예 IB과정을 한국어화해서 국내에 도입하는 절차를 연구하자고 했다. 제주도 교육청은 2018년 1월 IB를 한국어화하여 공교육에 시범 도입하는 방안을 협의하자는 첫 공문을 IB본부에 보냈다. 2018년 3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IB 글로벌 컨퍼런스에는 제주 교육청, 충남 교육청, 대구 교육청에서 30명의 대표단이 자발적으로 구성되어 참여했다. 이때 제주 교육감, 충남 교육감을 비롯한 한국 교육청 대표단이 IB본부 회장단과 공식 회담을 갖고 IB 한국어화를 정식 요청했다.

IB본부는 처음에는 한국어화에 큰 관심이 없었다. 2018년 5월 하순 제네바에서 열린 이사회에 IB 한국어화 개발 의제가 상정되었을 때만 해도 본부의 이사들은 대체로 무관심했다. 그러던 이들이 한국어화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게 된 데에는 재미난 배경이 있다. 북미 정상회담 관련 뉴스가 연일 유럽 언론에도 등장하자 '작금의 세계 평화는 한반도에서 시작하지 않느냐, 이런 시기에 다름을 틀림으로 인식하지 않는 세계 시민을 양성하는 교육의 씨앗을 한반도에 심는다면 이는 IB가 추구하는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바가 아니겠느냐'는 설득이 주효했다는 후문이다.

이후 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IB본부와 교육청들은 2018년 7월~9월 동안 한국어 IB의 공교육 시범 도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했다. 공립학교에 IB를 도입할 인프라를 분석했고, 교원들 현황을 검토했으며, 주요대학들 입학처에서 IB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조사했다. IB 시범도입의 긍정적 가능성을 상호 확인한 타당성 검토 결과, 2018년 9월 26일 제주 교육감과 대구 교육감은 싱가포르에서 쿠마리 IB본부 회장과 IB 한국어화의 총론을 합의하는 회담을 했다. 이후 교육청들과 IB본부는 어떤 과목부터 한국어화할지, 교원 연수는 어떻게 할지, 채점관 양성은 어떻게 할지 등 각론을 협상했다. 국제계약이기 때문에 협력각서(MOC)의 법적 검토를 거치고 재정 계획에 대한 교육청 및 지역의회의 협의를 거쳐 곧 IB 한국어화에 관한 협력각서(MOC)가 체결될 예정이다. 한국어화된 IB 도입 관련 협력각서의 첫 유효기간은 일단 5년이고 이후 갱신할 수 있다. 1차년도부터 참여하는 교육청은 제주교육청과 대구교육청이지만 시도교육청별로 중간에 추가로 참여할 수 있다. 이미 일부 교육청들이 2차년도 혹은 3차년도 협약부터 참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물론 당장 전면 도입하는 것이 전혀 아니고 일부 학교에만 시범 도입한다.

IB 한국어화는 단순히 시험 문제를 번역하는 차원이 아니다. IB 대입 시험을 한글로 치르고 엄정하게 채점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에서 IB 수업 교원 연수를 하고, 영어판 채점과 동일한 수준의 한글 채점이 가능한 우리 채점관을 양성하게 된다. 그를 통해 시범 학교 이외에 일반 학교 교사들도 '집어넣는 교육'을 넘어 '꺼내는 교육'의 평가와 수업을 접하게 된다.

앞서 말했듯 IB의 초·중학교 프로그램은 교육 과정이 아니라 프레임워크여서 우리 국가 교육 과정과 충돌하지 않는다. 제도적으로도 가능하다. 2009년부터 우리의 '초·중등 교육 과정 행정 규칙'에 고등학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교육 과정이나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 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라는 문구가 있기 때문이다. 이 규정에 따라 현재 경기도외고가 도입한 IB 영문판 과정이 2010년 국내 학력으로 인정받고 있다. 제주 국제학교에도 IB 과정이 있는데 이 역시 국내 학력으로 인정받고 있다.

[국내의 IB 시범 도입 추진 현황 요약]

- 2017. 6. 서울시교육청의 IB 정책 연구 최초 의뢰.
- 2017. 12. 제주도교육청 IB 한국어화 추진 및 시범 학교 도입 공개 선언.
- 2018. 1. 제주도교육청이 IB본부에 IB 한국어화 협의 요청 공문 보냄.

- 2018. 2. 충남도교육청 IB 정책 연구 시작.
- 2018. 3. 싱가포르 IB 글로벌 컨퍼런스에 한국 교육청 등에서 자발적으로 30명의 대표단이 참석.
- 2018. 3. 26. 싱가포르 회담: 한국대표단(제주 교육감, 충남 교육감, 대구 교육청, 경북대 사범대학장, 서로 사전 협의 없이 자발적으로 모임.)이 IB본부 회장단과 공식 회담을 갖고 IB의 한국어화 개발을 공식 요청.
- 2018. 5. 26. IB본부 이사회에 IB 한국어화 의제 상정.
- 2018. 7. ~ 9. IB본부의 한국어화 타당성 검토 작업 착수.
- 2018. 9. 26. 싱가포르 회담: IB본부 회장 vs 제주 교육감 및 대구 교육감의 한국어화 총론 합의.
- 2018. 10~12. IB본부와 협력각서(MOC, Memorandum of Cooperation) 체결 위한 세부 조건 협상.
- 2018. 12. 제주 교육청, 대구 교육청의 IB 예산 지역 의회 승인.
- 2019. 1~3. 협력각서 법적 검토 및 각론 협의.
- 2019. 4. 협력각서 체결(예상).
- 2019. 5~. 영어/한국어 가능 교사들을 먼저 연수 강사로 집중 훈련

IB의 시범 도입을 추진하는 목적은 공교육에 IB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려는 것이 아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수능과 내신이 선진화되어 공정하면서도 시대가 요구하는 역량을 기르는 타당성을 갖추는 가치 한국형 바칼로레아(KB) 체제를, 10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다만, 현대자동차 설립 초기에 벤츠를 들여와 해체 분석해 보는 과정이 필요했듯,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새로운 체제를 설계, 개발하려면 샘플 사례를 온전히 들여와 해체하고 분석해 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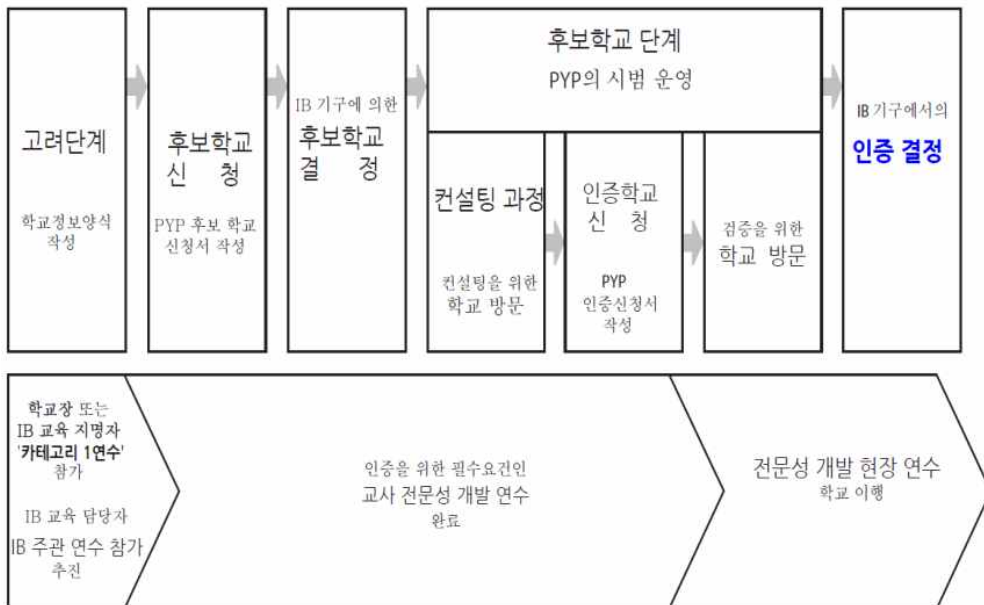
도입 비용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 기존의 IB 학교는 국내 공립 학교에 한국어로 적용된 적이 없고 국제학교나 사립 학교에 영어판으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영어로 수업이 가능한 교사의 채용과 연수에 소요되는 비용 모두를 학생에게 부담하게 해서 학비가 비싼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공립 공교육에 도입하겠다는 것은 이미 공적 자금으로 지원받고 있는 교사 인건비나 연수 비용을 활용하기 때문에 이를 학생에게 부담할 필요가 없다. 또한 연간 1만 달러 내외의 멤버십 비용이나 처음에 인증을 받기 위해 일회적으로 소용되는 비용 역시 기존의 혁신학교, 연구학교, 과학중점학교 등 실험적인 시도를 하는 학교들에게 제공되는

지원금 수준으로 충분히 충당 가능하므로 학생에게 추가 부담을 지울 필요가 없다. 즉 IB를 한국어화하여 공립학교에 도입한다고 해서 학생의 부담이 늘어날 일은 없다.

다. IB 학교가 되려면

IB본부에서 인증받은 IB 학교가 되려면 관심 학교→후보 학교→인증 학교의 과정을 거치면서 약 1.5년~2.5년이 소요된다. 우선 교장, 교감 등이 먼저 연수를 받은 뒤 IB의 철학을 이해하고 IB 학교 인증을 지원하겠다는 판단이 들면 신청서를 작성해서 먼저 관심학교 신청을 한 이후 안내되는 절차를 따르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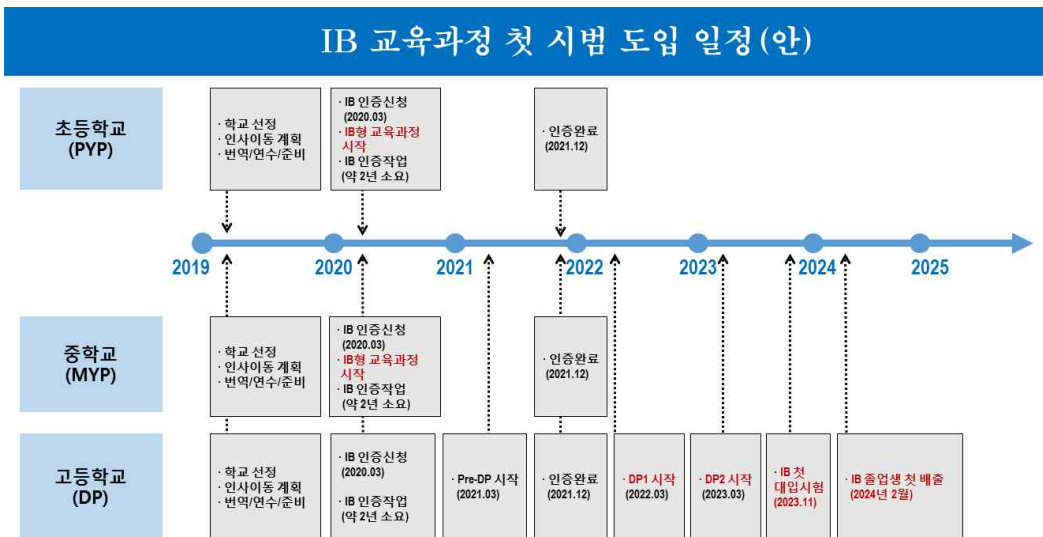


IB 수업 시점은 학교급 별로 다르다. 초, 중학교는 커리큘럼이 아니라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에 인증 완료 전에도 IB형 수업이 가능하지만, 고등학교는 인증이 완료되어야만 IB 수업 시작이 가능하다. 또한 초, 중학교는 인증 완료 전에는 전체 학생이 아닌 일부 학년 또는 학생만 IB 수업을 하는 것이 가능하나 인증 완료 후에는 한 학교 전체가 IB 교육을 해야 한다.

반면 고등학교는 한 학교 내에서 일부만 IB 교육 가능하다. 즉 한 학교에서 학생에 따라

IB반과 수능반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 고등학교의 IB 프로그램은 2년 과정이므로 우리 학제의 고1에는 IB에 없는 교과(기술 가정 등)를 포함하여 필요한 교육 과정을 융통성 있게 구성할 수 있다.

그러니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미리 준비가 되어 있으면 바로 2019년에 바로 인증 신청도 가능하다. 현재 교육청들에서 IB본부와 추진하고 있는 타임라인은 2023년 11월에 한국어화된 IB의 첫 대입 시험을 치르는 일정에 맞추어 진행하고 있다. 즉 2024년 대입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물론 첫 수험생의 숫자는 150명 정도로 매우 적을 것이나, 향후 수험생 수가 500명 이상으로 확대되면 한국어화할 과목을 확대하고 교원 및 채점관 양성도 확대하게 된다. 다음 그림이 초중고 학교급별로 인증을 신청하고 수업을 시작하며 대입 시험까지 치르게 되는 타임라인의 예시이다. 편의상 2020년에 인증을 신청하는 것으로 상정했는데 인증 신청이 더 늦어지면 그에 따라 순차적으로 인증 완료 시기도 늦어지는 것으로 계산하면 된다.



라. 한국어화 IB 도입의 의미

한국어화된 IB가 공교육에 도입된다는 것의 의미는 단순히 시험 문제를 번역하는 일을 뜻하지 않는다. 물론 초기에 대대적인 번역 작업은 수반되어야 한다. 번역 작업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대부분 교사용 안내서이다. 교육 과정, 교수법, 평가 기준, 대입

시험 가이드 등에 대한 번역이 일차적인 작업이 될 것이다.

그러나 IB는 초·중·고 전체가 정해진 교과서가 없기 때문에 교과서 번역은 공식적으로 하지 않는다. 교과서 자유 발행제에 의해서 참고서 격으로 나온 자료들을 개별적으로 번역할 수는 있을지라도 IB본부와 제휴해 번역하는 작업에는 교과서 번역이 포함되지 않는다. 일본도 교과서 번역이 없었고 기존의 국정, 검인정 교과서를 그대로 사용했다. 다만 각종 교과서들은 모두 학습의 소재, 자료의 하나로 활용될 수 있다.

IB의 한국어화는 단순히 온갖 자료들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대입 시험과 내신 시험 모두를 한국어로 치르고 엄정하게 채점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험문제의 내용은 어느 언어로 이루어져도 동일하다. 답안 역시 어느 언어도 작성되어도 동일한 수준으로 채점되어야 한다. IB의 한국어화는 영어권 IB와 동일한 수준의 한국어판 채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국인 채점관을 양성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리고 한국에서 IB 공식 연수가 진행되는 것을 포함한다.

이를 위해 먼저 IB 교원연수가 한국어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종의 정예 요원을 먼저 양성하게 된다. IB 교육은 단순히 교수법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과 개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하는데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통역을 통해서 철학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따라서 IBO와 교육청들은 초기에 국내 교사들 중 교과별로 영어 가능한 교원들을 차출하여 수개월에 걸쳐 집중 훈련하여 정예요원으로 양성하기로 합의했다. 단계별로 여러 집중 연수에 투입되어 양성과정 이수가 완료되어 연수강사로서의 전문성이 충분히 갖추어졌다고 판단되면 이들은 한국어로 진행되는 국내 일반 교사들을 위한 연수에 투입된다. 그리고 이들 중에서 채점관 후보를 선발하여 추가 훈련을 더 받고 자격이 되면 채점관으로 활동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IB 본부는 초기에 정예요원으로 양성된 교과별 교사들이 채점관 훈련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면 실제 영어권 대입 시험의 채점에 투입할 계획이다. 영어권 채점에서 무사히 검증된 채점관들로 하여금 2023년 11월부터 진행되는 한국어판 대입 시험 채점에 투입되도록 하여 영어권 IB와 한국어판 IB의 채점의 질을 균등하게 확보하겠다는 것이 IB의 방침이다.

한국어화된 IB의 시범 도입은 무엇보다 시범 학교 이외의 교사와 학부모에게 여러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IB 시범 학교에서 ‘한국어화된 IB’로 수업하기 시작하면, 시범 학교 이외의 일반 학교 교사들도 새로운 종류의 평가, 수업, 교수법을 접할

연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시범 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 학생과 학부모들도, 같은 공립 학교를 다니는 옆집 아이가 다른 종류의 숙제를 하고 다른 종류의 시험을 보는데도 국내 대학에 잘 입학할 수 있다는 사례를 지켜보면, 객관식 상대 평가만이 가장 공정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선진화된 수능과 내신의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하여 대한민국 교육을 패러다임적으로 혁명할 수 있는 씨앗의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 IB 시범학교 도입의 과제

IB에 대한 대다수의 질문들은 IB가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관계로 피상적인 단면만을 보고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오해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IB에 대해 차분하고 설득력 있게 정확한 팩트를 알리고 적극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어화된 IB 도입을 검토하는 것은 공교육에 전면 도입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시도교육청 별로 원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몇 학교 수준의 시범도입을 말한다. 교육청에서 도입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소요 예산을 혁신학교나 연구학교 지원처럼 교육청의 예산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학생이나 교사가 예산 걱정을 할 필요도 없다. 이하에서는 IB에 대한 FAQ를 몇 가지 제시하기로 한다.

1) 귀족교육? 엘리트교육?

귀족교육이라는 인식 때문에 일본 내에서도 공산당만 반대했다고 하는데, 국내에서도 궁극적인 방향은 동감하나 귀족교육, 엘리트교육 같다면 공교육 도입이 시기상조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이쿠코 츠보야 IB 대사는 이러한 시각에 대해 미국 플로리다의 한 우범지역 공립학교에 IB가 도입된 사례를 소개했다. 해당 공립학교는 폭력, 마약, 임신/낙태 등 청소년 범죄가 끊이지 않는 심각한 상태였다고 한다. 학생들의 학업의욕이 전무 하다시피 한 건물론이다. 그런데 그 학교에 IB 교육과정이 도입된 후 놀랍게도 청소년 범죄율과 임신/낙태 비율이 현격하게 줄었다고 한다. 게다가 부모도 학생도 대학진학은 원하지 않던 지역이었는데, IB 도입 후 학생들이 스스로 대학 공부라는 것을 해보고 싶다는 의지가 생기더라. 성적 고하를 막론하고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교육과정이기엔 범죄와 비행은 저지르던 청소년들도 스스로 눈을 뜨고 깨어나게 만들었던 것이다.

한편 고등학교 과정인 IBDP는 만점이 45점인데 약 40점 이상이면 옥스퍼드 하버드 등 세계

최상위권 대학을 지원할 수준이 된다. 경기외고나 제주국제학교 같은 경우 평균이 대략 37점 정도인데 이것은 입학부터 선발된 집단이라 대단히 높은 점수인 것으로 전세계 평균은 약 29점이다. 즉 성적이 낮은 학생들도 많다는 것이다. IB는 시대적 역량을 기르는 또다른 종류의 수월성을 추구하기도 하지만, 반드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만 받을 수 있는 엘리트 교육은 아니다.

2) 또 다른 탐다운 통제인가?

IB는 탐다운으로 실현 불가하다. 철저히 교사 중심, 학교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IB를 도입하겠다는 차원은 학교를 지정해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IB에 관한 설명을 통해 안내를 충분히 들은 후 하고 싶어하는 교장과 교사들을 중심으로 원하면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으로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설령 교사들이나 학교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다. IB 도입 허용은 모든 학교가 하자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학교를 방해하지 말고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자는 것이다.

다만, IB처럼 꺼내는 교육은 사실상 ‘교사의 교육권’ 과 ‘학생이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배울 권리’가 보장되어야만 가능한 제도이다. 인권 ‘이 법과 제도로 보호되기 전까지는 아예 그 개념조차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교사의 교육권 ‘과’ 학생의 학습권 ‘도 법과 제도로 보호되기 전인 현재는 사실상 그 개념조차 미비하다. 우리 교육에서 사실상 교사의 교육권이 박탈되어 있다는 것과 학생이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권리가 박탈되어 있다는 것을 대부분 인식조차 못하고 있다.

IB에서는 교사가 목적하는 역량을 기를 수만 있다면 어떤 교재를 얼마 동안의 기간에 가르치고 어떻게 평가할지 교과서와 진도와 평가의 자율권이 있다는 점에서 교육의 내용과 진도와 평가에 대한 교사의 자율권이 박탈되어 있는 우리 교육과 매우 다르다. 학생들도 저자의 생각, 교과서의 정답이 아닌 즉 자신만의 관점과 논리를 기를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 스스로의 생각이 아닌 정해진 정답만을 찾아야 하는 우리 교육과 매우 다르다. 즉 IB는 교사의 자율성을 극대화하여 교사의 교육권을 보호하고, 집어넣는 교육이 아닌 꺼내는 교육 패러다임을 평가하면서 학생이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배울 학습권리를, ‘제도적 환경으로’ 보호해 주는 시스템이다.

우리 현실의 문제를 개혁하는데 외국의 제도를 단순히 사오자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전

과목 논서술 대입 시험을 공교육에서 채점의 공정성 문제 없이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지 한번 경험해 보면 우리만의 맥락에서 노하우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일단 톨모델로 몇몇만 시범적으로 도입해보자는 것이다. 혁신학교가 훌륭한 기여를 해왔지만 대입의 문제, 학력논란 등을 해결하지 못했다. 지금 학교에서는 제도적 환경적 제약으로 서술형 평가 하나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걸 제대로 할 수 있게 하고자 IB를 전략적 도입하자는 것이다.

IB 본부에서는 꺼내는 교육을 막는 제도가 발목을 잡는 한 IB학교로 인증을 해주지 않는다. 즉 IB 인증학교가 공교육에 도입된다는 것은 우리의 교육을 막는 제도 전체를 다시 반성하고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임을 의미하기도 하다. 그건 단지 무수한 공문, 이원목적분류표 등의 문제만이 아니다. 교육을 관리감독한다는 명분하에 학교를 옥죄고 사실상 교육을 방해하고 있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거버넌스 구조까지 바뀌야 하는 문제이다. 공교육에서 IB인증학교를 도입한다는 것은 기꺼이 교육당국의 거버넌스 구조의 개혁 의지를 갖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전국의 모든 학교를 한꺼번에 IB학교로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난공불락의 우리 교육 문제를 해결할 참고사례로 진지하게 고민해 보자는 것이다.

3) 한꺼번에 도입보다 점진적 도입이어야 하지 않나?

IB 도입 전략은 '점진적'일 수 있지만 한 학생이 경험하는 한 학교 체제 내에서는 반드시 '한꺼번에'여야 한다. 대한민국의 교육을 집어넣는 패러다임에서 꺼내는 패러다임으로 바꾸는 교육혁명은 장기 계획을 설정하고 긴 호흡으로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전국 모든 학교의 개념으로 보면 몇몇 학교에서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바뀌어야 하겠지만, 시범학교로 지정된 개별 학교 내에서는 '한꺼번에' 바뀌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IB 인증학교가 된 학교들은 기존 커리큘럼의 절반 정도만 바뀐다는 등의 개념이 전혀 적용되지 않았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학교의 교육과정은 '한꺼번에' 다 바뀌어야 한다. 한 교육과정 내에서 혹은 한 수업 내에서 부분적으로 점진적으로 바뀌면 아이들은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 한다. 한꺼번에 바뀌고 IB 인증학교가 된 경기외고의 사례를 봐도 아이들은 다들 바로 IB 교육에 적응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한 아이에게 도입할 때 IB는 평가의 일부분 도입이 아니라 전체를 통으로 도입해야 성공한다. IB 교육과정만 도입하고 대학입시가 안 바뀌거나, IB 논서술형 평가제도만 도입하고 교육과정을 기존 주입식으로 하는 등 부분만 도입하면 마치 바퀴 하나가 없거나 엔진이 빠진

오토바이 구입하듯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예컨대, IB를 기존 공교육에 50%만 도입한다거나, 수능에 30%를 출제한다거나, 공교육 학생들이 주 1-2회씩 수업하는 영재프로그램에 도입한다거나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것은 IB가 아니다. 학생들에게 이중고를 안기는 셈일 뿐만 아니라 IB에서 얻고자 하는 교육효과도 얻지 못한다. 도입 후 정착되어 익숙해진 다음에는 이를 바탕으로 변형된 한국형 교육과정을 만들 수는 있겠으나, 일단 처음에는 반드시 전부를 통으로 도입해야 한다.

4) 사교육이 폭발할까?

IB도 사교육을 물론 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최상위권으로 올라갈수록 사교육을 한다. IB는 사교육이 있다 하더라도 상위권 최상위권으로 올라갈수록 안 한다. 잘하는 애들도 자기가 잘하는 과목은 사교육 안 하고 부족한 과목을 한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수업의 보완, 결손, 이것에 대한 보충, 이 개념으로 사교육을 접근을 하지, 잘 하는데 더 잘하기 위해서 더 실수 안 하기 위해서 무한 소모적인 경쟁은 안 한다. 그게 성적에 직결되지 않는 평가구조이기 때문이다.

사교육계는 학교마다 교육과정, 진도, 시험 방식이 획일화되지 않고 다르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나고 성토하게 될 것이다. 한 문제 가지고 몇 주씩 심층사고와 퇴고를 거듭한 사고력 훈련을 하게 되면 문제집을 수십 권씩 풀 일이 없기 때문에 일단 학습지 시장이 고사한다. 문제풀이에 집중하던 학원도 설 곳을 잃게 된다. 게다가 학교 내신 평가항목에 “자신이 직접 한 정도”에 대해 점수를 매기는 평가기준이 있다. 학생의 평소 수업시간 활동과 달리 외부에서 해온 흔적이 확인되면 즉시 그 분야 최하점수를 받는다. 물론 그럼에도 한국의 사교육은 여전히 살아남을 거라지만, 궁극적으로 “생각하는 힘”이 평가 기준이라면 적어도 학원에서조차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연습을 하지 않겠는가?

5) 채점의 공정성 문제는?

고등학교는 대입 시험이 있어서 수능 같은 외부 시험을 본다. 그러면 외부로 가서 전체 채점을 하는데, 그 채점관을 양성하는 방법이 주로 현직 교사 중에서 채점관을 양성한다. IB를 가르치는 현직 교사들 중에서 신청을 하면 채점 테스트를 해서 통과하면 IB 채점관이 될 수 있다. 일본은 이 채점관을 자국민으로 양성하고 있다. 기존에는 제주 국제학교나 경기외고나 IB의 최종 대입 시험을 보면 모든 답안지가 영국에 있는 채점센터로 가서 거기서 채점

관에게 배포하여 채점했는데, 일본은 자국민 중에서 양성하는 과정을 통해 사실상 매우 실질적인 교사 연수의 효과도 얻고 있다.

실제로 채점을 하는 방식의 한 예를 살펴보면, 논술형 답안지 약 100개 정도가 한 채점관에게 할당이 되면 보통 10개의 답안지가 포함된 한 세트씩 순차적으로 온라인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한다. 채점관은 웹사이트 들어가서 답안지를 읽고 채점을 하는데, 10개씩의 한 세트 중에 이미 기채점된 스파이 답안지가 하나씩 들어가 있다. 이 스파이 답안지는 기채점된 것이기 때문에 채점관의 채점결과가 적절한지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한다. 물론 채점관도 이러한 기채점된 답안지가 10개 중 하나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 그게 어떤 것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모든 답안지를 신중하게 채점해야만 한다. 만약 기채점된 스파이 답안지가 채점이 잘못했다면 그 10개의 세트 전체를 다시 채점한다. 대부분의 채점은 교차 채점을 한다. 다른 채점관의 채점 결과와 점수가 얼마 이상 차이가 나면 또다시 재채점을 한다. 그리고 실제로 능숙처럼 점수가 학생에게 통지된 이후에도 학생이 채점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채점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재채점의 경우 점수가 떨어질 우려도 있기 때문에 교사와 학생은 재채점을 함부로 신청하지 않고 신중을 기한다. 이런 식으로 여러 단계에 걸쳐서 채점의 일관성을 공정하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50년 동안 채점의 공정성 문제가 없게끔 공신력 있게 신뢰를 받고 있다.

IB 교육을 시작하고 지속가능하려면 무엇보다 IB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교원과 IB 교육을 필요로 하는 교육 수요자를 육성관리 해야 한다. IBO에서는 IB 학교의 교원을 위해 Category 1, 2, 3 단계별로 각각 교원연수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전세계의 같은 교과 교사들끼리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하여 그들의 고민과 경험을 공유하게 한다.

6) 혁신학교와 또다른 무엇인가?

혁신학교를 성공적으로 이루어가고 있는 현장에 있는 교사들은 IB의 평가체제를 보면 혁신학교의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언급을 종종 한다. 성공적인 혁신학교들에서 볼 수 있는 수업과 평가 방식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즉 혁신학교·혁신교육 및 최근 교육과정·평가지침에서 강조되어온 역량중심 교육, 수행평가 확대, 과정중심 평가로의 이행 등이 IB에 모두 담겨 있다. 그러나 아직 IB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혁신학교, 과정중심평가, 객관식 폐지 등의 새로운 평가체제 및 교육과정을 적용하는 것도 어려운데, 여기에 또다시 새로운

무언가가 더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하기도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IB는 혁신학교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과 전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오히려 혁신학교를 세계적 국제적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강화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혁신학교가 개별 사례를 넘어 구체적 모델로 정립되게 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현재의 혁신학교는 여러 과제에 직면해 있다. 아무리 혁신학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도 결국에는 다른 일반교와 동일한 입시체제 속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입시에 가까운 학년으로 갈수록 혁신학교 운영이 어려워진다는 점, 그리하여 입시경쟁이 치열한 지역에 혁신고등학교 운영이 어렵다는 점, 공신력 있는 학력 검증 연구결과가 아직 충분히 정립되지 않아 여전히 학력 논란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 그리고 평가의 공정성 논란 때문에 여전히 일관된 채점 기준이 애매하다는 점, 콘텐츠가 체계적으로 연수되지 않고 교사 개인기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져 잘 하는 혁신학교는 잘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적지 않게 있다는 점 등의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혁신학교가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훌륭한 방안으로 참고할 수 있는 모델이 IB이다.

그렇기 때문에 IB 시범학교를 도입하겠다는 시도교육청에서는 현재 혁신학교로 이미 지정되어 운영하고 있는 학교 중에서 IB 시범학교를 지정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요컨대 IB는 혁신학교와 전혀 다른 무엇이라기보다 현 혁신학교가 추구하는 가치를 국제적 수준으로 완성하는 모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므로, 기존의 ‘발전형’ 과도기적 혁신학교에 IB를 도입하여 ‘완성형’ 혁신학교로 업그레이드하는 전략적 활용이 가능하다.

OECD 36개국 중 수능과 내신이 둘 다 모두 객관식 상대평가인 나라는 딱 두 나라이다. 우리나라와 일본. 그 일본이 지금 교육혁명을 진행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만 남게 된다. 어느 방향으로 개혁해야 하는지 더욱 분명해지는 시점이다. 사람은 평가 기준에 따라 움직인다. 시험이 짊어 넣어진 학습 정도를 평가하는 것에서 꺼내는 사고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바뀌면, 공부법, 교수법, 교육과정, 교육제도가 모두 바뀐다. 시험혁명은 하나를 건드려서 다른 모든 것을 도미노처럼 변화시킬 수 있는 결정적 킥판이다. 그래서 대한민국 교육혁명의 시작은 평가혁명부터다.

마. IB를 넘어 KB(가칭)로 나아가야

IB 시범도입을 추진하는 목적은 공교육에의 IB 전면도입이 아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수능

과 내신이 선진화되어 공정하면서도 시대가 요구하는 역량을 기르는 타당성을 갖추는 가칭 KB(한국형 바칼로레아)³⁾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다만, 현대자동차 설립 초기에 자동차를 처음 만들려면 벤츠를 들여와 해체 분석해 보는 과정이 필요했듯이, 우리도 한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새로운 체제를 설계 개발하려면 예시 사례를 온전히 들여와 해체 분석해 보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략적 시범 도입을 하자는 것이다.

2018년 대한민국 교육은 2015교육과정, 과정중심평가, 고교학점제, 절대평가 등의 정부 정책을 어떻게 하면 교육 현장에 효과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 IB는 무엇보다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시대의 쓰나미 속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시대가 요구하는 역량을 기르는 선진화된 교육과정이다. 이런 이유로 IB는 우리나라에서나 일본에서나 연간 수천만 원씩 학비를 내야만 하는 국제학교나 외국인학교에서 주로 운영되어 오던 교육과정이었다. 이런 종류의 교육을 공교육에 무상으로 시범도입하겠다는 것은 경제격차에 따른 교육격차를 진정으로 해소하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또한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5 교육과정, 절대평가, 고교학점제, 창의 융합 인재, 4차 산업혁명 역량교육, 이런 모든 것을 해결하려면 객관식 정답찾기 교육은 반드시 탈피해야 하는데, 문제는 논서술형 시험에서의 채점의 공정성 논란을 극복할 다른 대안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초기에 논서술형 채점 공정성에 불안과 불신을 해결하기 위해 유럽 처럼 논서술형 채점의 신뢰 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공신력 있는 채점 인증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전략적으로 불가피하다. 이것은 불필요한 소모전을 방지할 수 있는 전략이다. 즉 한국형 바칼로레아를 충분히 신뢰롭게 개발할 때까지 초기에 일시적으로 히딩크를 영입하는 개념이다. 공신력 있는 기관의 채점 체계를 도입하여 배워보자는 것이다. IB는 내신 절대평가 도입시의 부풀리기 문제, 학종의 부작용 문제 등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다.

게다가 이것은 교사의 자율성을 극대화하여, 교사의 평가권을 포함하여 교사가 교육내용, 진도, 평가, 교과서를 선택할 수 있는 교사의 교육권을 회복시키는 것이며, 저자의 생각, 교과서의 생각을 주입하는 것이 아닌, 학생 개개인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울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IB의 공교육 도입은 대한민국 교육혁명의 시

3) '바칼로레아'라는 이름은 여러 곳에서 쓰인다. 이 글에서 논하는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IB) 외에, 우리에게 그간 널리 알려져 왔던 프랑스 바칼로레아(FB)도 있고, 유럽피안 바칼로레아(EB), 잉글리쉬 바칼로레아, 스페니쉬 바칼로레아, 튀니지 바칼로레아, 루마니아 바칼로레아 등이 있다. 모두 서로 전혀 다른 시험이다.

작이다.

참고문헌

- 1) 문부과학성(2018). 문부과학성 정보발신: IB에 대해.
- 2) 유이치로 안자이 (2017). 일본의 교육 및 대입제도 대개혁: 현황과 미래전망. 국회 미래일자리와 교육포럼 자료집 (2017.11.).
- 3) 이기정 외 (2018). 입시의 몰락. 창비교육.
- 4) 이쿠코 츠보야 (2018). IB는 일본 교육개혁을 성공시킬 흑선입니다. 월간좋은교사(2018.2.)
- 5) 이쿠코 츠보야 (2017). IB 교육과정과 평가: 일본의 사례. 제주교육 국제심포지움 자료집 (2017.12.).
- 6) 이혜정 외 (2018). IB 교육과정 및 평가제도의 제주교육 적용방안 연구. 제주도교육청 위탁연구 최종보고서.
- 7) 이혜정 외 (2018). 비판적 창의적 역량을 위한 평가체제 혁신방안: IB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시교육청 위탁연구 최종보고서.
- 8) 이혜정 (2018). 시대가 요구하는 역량을 기르고 있는가. 매일경제신문. 2018.9.14.칼럼
- 9) 이혜정 (2018). [인터뷰] 수능과 학종 프레임 벗어난 교육혁신 시급. 2018.9.20.
- 10) 이혜정 (2018). [신년인터뷰] 이혜정 교육과혁신연구소장. 독서신문. 2018.1.4.
- 11) 이혜정 (2017). 교육이 '사육'에서 벗어나려면. 매일경제신문. 2017.9.28.칼럼
- 12) 이혜정 (2017). 교육평가 어떻게 제대로 할 것인가. 국회미래일자리와 교육포럼 자료집 (2017.9.).
- 13) 이혜정 (2017). 교육혁명, 시험혁명서 시작해야. 매일경제신문. 2017.6.1.칼럼
- 14) 이혜정 (2017). 일본은 교육혁명 시작했는데 한국은 구한말인가. 매일경제신문. 2017.4.27.칼럼
- 15) 이혜정 (2017). 대한민국의 시험. 다산북스.
- 16) "알기 잘하는 내신 1등급, 창의력은 7등급" 매일경제 2017.6.26. 1면
- 17) "주입식 교육 강요당하는 학생들, 4차산업혁명 낙오 우려" 매일경제 2017.6.26. 4면
- 18) "정보수집/의사결정은 AI 몫, 문제발굴 능력 키워줘야" 매일경제 2017.6.26. 5면
- 19) 한국IB교육연구회 <http://www.ibkorea.kr>

IB는 한국의 낮은 평가 체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 제1토론

IB 토론문

김진우(세종과학고 교사,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

○ 절대평가의 과제와 IB의 의의

수능과 학종의 대립에서 핵심 쟁점은 교육의 질 문제다. 수능은 객관성과 형식적 공정성은 확보하고 있으나 객관식 문제라는 한계에 갇혀 있다. 학종은 학교 교육의 질을 변화시킨 측면이 있으나 여전히 학교 시험의 몸통은 객관식 지필평가라는 점에서 큰 변화를 이끌지 못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수능보다는 학종이 학교교육의 질이라는 측면에서 낮지만 10% 정도의 효과라고 본다. 10%라고 하는 이유는 물론 주관적 추정치이지만 학교 교육에서 수행평가가 차지하는 비중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다. 지필평가에서 객관식 문항은 물론이고 논술형이라고 하는 것도 무늬만 논술인 경우가 많으므로 실질적으로 논술형이나 수행평가를 통한 평가 비중은 10%를 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사실상 수행평가의 실질적 변별력은 표면적인 비중보다 훨씬 낮다. 예를 들어 수행평가 비중을 30%로 한다 해도 실질적 점수 차이는 1-2점 차이에서 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물론 변별력이 크다고 중시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누구나 비슷한 점수를 받는 수행평가는 대충 때우고, 지필평가에 집중하는 것이 유리한 선택이다. 그나마 점수 변별력의 약화를 보완하는 것이 세부특기사항 서술이다. 학종으로 인해 이 부분이 강화된 것이 수행평가의 활성화에 영향을 미쳤다. 그 점에서 필자는 학종의 긍정적 효과를 평가하는 입장이지만 그 효과는 앞서 말한 것과 같이 10%를 넘기 어렵다.

객관식 시험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는 입시 구조 속에서 평가의 객관성 시비를 의식한 결과일 것이다. 그것도 세밀한 상대적 변별을 해야 하는 구조 속에서 명백한 판정 기준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낸 것이다.

그런데 이제 고교학점제를 앞두고 절대평가로 이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절대평가가 필요한 이유가 고교학점제 때문만은 아니지만 상대평가체제를 두고서는 소인수 선택 과목이 개설되기가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필자는 고교학점제를 위해서 반드시 절대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상대평가 체제에서도 소인수 과목은 개설될 수 있고, 입시에 특별히 불리하다고 볼 근거도 없다. (이 부분은 자세한 논의를 필요로 하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절대평가가 필요한 이유는 다른 곳에 있다. 상대평가가 반드시 하위 등급을 필요로 하는 즉 실패를 필연적으로 내장하는 체제라는 점에서 모두의 성공이라는 교육학적 이상을 위반한다는 점은 매우 중대한 문제이지만 여기서는 차치하자.

필자가 생각하는 현실적인 문제는 2가지다. 첫째, 상대평가 체제는 필연적으로 세밀한 변별 체제를 요구하고, 이로 인해 0.1점의 차이라도 반드시 내야 하는 요구 속에서 객관식 시험이라는, 객관성은 높지만 타당성이 떨어지는 시험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다는 문제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상대평가는 필연적으로 상위권 학생들의 과잉 경쟁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90점 이상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동급으로 인정하면 적정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100점과 99점의 차이 혹은 4%를 구별하기 위해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불필요하다는 것은 변별을 위한 변별을 위해 과도하게 어렵거나 치졸한 문제로 학생들을 괴롭히는 문제를 말한다.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극복의 방향은 2가지인데 하나는 객관식 문제가 아닌, 논술형이나 수행평가를 통해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과잉 경쟁을 완화할 수 있는 절대평가 혹은 느슨한 상대평가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2가지 과제를 요구한다. 첫째, 교사들의 평가 전문성이다. 학생들의 과제의 질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둘째, 교사들의 평가에 대해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검증 체제가 있어야 한다. 교사들의 평가 전문성 문제는 개인적 차원에서 확보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다른 교사들과의 기준의 공유이다. 가 교사의 A와 나 교사의 A가 동등한 가치를 지녀야 한다. 이 부분을 우리는 사실상 상대평가를 통해 대중적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대처했다. 즉 최소한 교사가 부풀리기를 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신뢰성을 부여했다. (상대평가는 집단들의 환경적 격차를 보정한다는 장점은 있지만 단위학교 차원의 상대평가 체제가 가져오는 경쟁의 체감도의 문제나 부작용은 그 효과를 상쇄하는 것 같다. 불리한 집단에 대한 적극적 차별 해소는 쿼터제와 같은 사회적 장치로 해

소해야지 상대평가라는 체제를 통해서 달성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문제는 논제를 벗어나므로 생략한다.)

핵심은 어떻게 절대평가를 가능하게 할 것인가의 문제다. 이 문제의 해법을 IB 체제를 연구함으로써 모색할 필요가 있다.

○ 새로운 대입 제도와 IB의 의의

향후 우리 입시 체제는 사회적 요구와 교육적 필요를 충족해야 할 과제가 있다. 수능을 찬성하는 사람들의 요구는 형식적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요구이다. 학종을 찬성하는 사람들의 요구는 학교교육의 질적 변화에 대한 요구이다. 이 둘은 조화될 수 없는가?

핵심은 수능의 질적 변화에 있다. 수능이 논술형으로 변화되면 학교교육의 질적 변화를 뒷받침할 수 있다. 물론 수능만으로 선발하는 체제는 문제가 있다. 일상 수업에서 관찰되고 평가될 수 있는 능력이 간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질문, 토론, 발표, 실험, 보고서 작성 등과 같은 다양한 국면은 일회적 평가로 평가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필자가 생각하는 대안적 입시제도 방안은 다음과 같다. 간단히 말하면 논술형 수능과 같은 외부평가와 수행평가 위주의 내신을 결합하자는 것이다. 이 경우 현재 내신의 지필평가는 폐지하고 지필평가로 평가되는 것은 수능으로 흡수된다. (학생과 교사 모두 연간 4회의 지필평가 체제에서 벗어난다.) 대신 내신은 학교에서 관찰 평가하는 수행평가로 만들어진다. 수행평가의 결과는 총괄적 점수가 아니라 수행능력별 점수로 제공한다. 즉 논술 능력, 발표 능력 등으로 세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평가는 대략 5등급 정도의 점수로 표시되고 질적인 평가를 포함할 수 있다.<대입제도 딜레마, 대타협은 가능하다> 참조)

이런 관점에서 볼 때 IB식 평가 체제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IB는 외부평가와 내부평가의 조합이다. 그리고 외부평가가 수능과 같은 획일적 외부 평가가 아니라 단위학교의 수업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외부평가다. 평가 기준은 표준화되어 있지만 학교마다 다른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자율성은 비교적 폭넓게 보장하고 있는 체제다. 이 점에서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의 자율성의 폭은 더 좁게 보인다. 그것은 지나치게 세세한 성취기준들이나 몇 종류의 검인정으로 좁혀지는 교과서 체제 그리고 무엇보다 객관식 시험이라는 형식에서 비롯되는 제약 그리고 비중이 줄어들었다고 하나 여전히 강력한 수능 시험의 영

향 (+EBS 교재 연계)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논술형 문제의 평가 기준을 공유하고 콘텐츠 선택은 교사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IB체제가 더 낫다.

물론 아예 외부적 평가가 없는 것이 교사의 자율성 확보에는 더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부분은 사회적 요구와 조화를 맞출 필요가 있다. 외부평가를 하지 않고 내부 평가만 할 경우 이를 입시에 반영하고자 한다면 그 신뢰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충족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절대평가에 대한 외부적 검증을 강화할 수도 있는데 내부평가의 비중이 너무 크면 지나치게 엄격한 검증 기준을 들이대고 결국 교사의 평가 자율성을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 그것을 피하려면 결국 상대평가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다시 도루묵이 된다. 요컨대 교사들의 평가 자율성을 완전히 보장하면서 절대평가를 하면서 검증은 하지 않으면서 입시의 근거가 되도록 한다는 것은 대단히 충족하기 어려운 요구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균형점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로서는 IB식 외부평가와 내부평가의 조화가 균형점으로 보인다. (필자는 IB의 내부평가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외부평가와 내부평가의 총점을 합해서 총괄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은 세련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은 세부적 논의를 더 필요로 한다.)

○ IB 시범 도입의 의의

이와 같은 배경에서 필자는 IB식 평가 체제의 한국적 적용을 심도 있게 모색할 필요를 느끼고 있다. 이미 IB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공립학교 상황과 다른 경우가 많아서 공교육 체제에 적용하는 모델을 연구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를 두고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외국의 식민지가 된다는 식의 비판은 과도한 것으로 보인다. 상당수의 비판은 허수아비에 대한 비판으로 보인다.

필자가 우려하는 것은 시기상조인 느낌은 있지만 IB 시범학교가 시범학교의 역할이 아닌 하나의 고정된 트랙으로 자리 잡는 것이다. 이 부분은 대입에서 IB 졸업생이 어떤 대우를 받는가에 연결되어 있다. 만약 IB 졸업생이 진학에 매우 유리하다고 나올 경우 이것은 또 하나의 특혜적 학교로 자리잡을 수 있다. 반대로 IB 졸업생이 대학 진학에 불이익을 받을 경우는 그것도 문제다. 이 균형을 잡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나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 학생들의 선택권은 존중하되 선발 시험에 의하지 않고, 일반 공립학교와 동일한 선택권을

부여해야 특혜 시비가 줄어들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범 운영 기간을 처음부터 분명히 하는 것이다.

IB학교가 또 하나의 특목고나 자사고와 같은 지위를 가지고 입시의 하이패스 트랙으로 자리 잡는다면 그것을 공교육 예산으로 지원할 이유가 있는지 심각한 의문이 제기될 것이다.

○ IB 시범 단계를 건너뛸 수는 없는가?

궁극적 목적이 KB(가칭)라면 IB 시범 단계를 거치지 않고 갈 수는 없는가? IB 시범 이후에 밟아야 할 단계는 무엇인가? 교원 연수와 채점관의 양성일 텐데 그것은 지금부터 적용 가능하지 않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청이 얼마나 의지를 갖고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다. 만약 IB 체제가 던지는 도전에 대해 굳이 그것 없이 충분히 평가 체제를 혁신할 수 있다는 전망이 보인다면 최선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그럴 필요성조차 느끼지 않는 상황이라고 판단되기에 필자는 IB 시범학교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기울고 있다. 국내에 IB 학교가 있음으로 해서 주어지는 자극과 도전을 피부로 느낄 수 없다는 약점이 있어, 거대한 체제 변화를 시도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는 IB 시범 학교를 런칭하는 것이 운동적인 측면에서 필요할 수 있다.

IB는 한국의 낮은 평가 체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 제2토론

“IB 도입보다 학교평가의 신뢰를 높여야”

이성대(신안산대학교 교수)

International Baccalaureate(이하 IB) 도입과 관련한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 교육적 효과가 검증된 우수한 교육시스템 중 하나로서의 의미는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교육 전체에 이 시스템을 도입하자고 하는 것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물론 발제자는 전체 도입이 아니라 시범 도입이라고 이야기 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의 전개는 모든 고등학교에 이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내용이라 본 토론문은 전체 고등학교에 도입되는 것을 전제로 진행하고자 한다.

우선 IB 도입의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된다.

IB가 대한민국 교육의 난맥상을 풀어낼 전가의 보도가 될 수 있을까? IB 도입의 목적이 무엇인가? 대학입시 문제 해결? 공교육 혁신? 사교육 절감? 그리고 IB 도입 주장은 논리적으로 타당한가? 등이다.

여기에 현실적 조건도 무시할 수 없다. 한 학생당 9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2018년 입학생 수를 기준으로 하면 한 해에 45만명씩 입학하므로 1년에 무려 405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예산은 매년 소요되는 예산이다.

무엇보다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에 대한 학교 현장의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인가?

IB는 말 그대로 전 세계 대학입학을 위한 공통의 기준(표준)을 제시하고 이를 검증, 관리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표준화된 시스템은 아무리 훌륭한 것이라 할지라도 다양성을 제한하는 기제로 작동한다는 점에서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B의 Theory of knowledge, Extended Essay, CAS 등은 매우 큰 장점이다. 교육과정의 기본 또는 백그라운드로 비판적사고, 고급 글쓰기, 창의적 체험활동과 같은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장점이며 이미 우리 교육과정에서도 형식적으로는 도입되어 있다. 물론 실제 운영의 질에 대한 평가는 다를 수 있다. 발제자도 이런 점에서 IB와 혁신학교의 상호촉진의 가능성을 제시한 것처럼 혁신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활동에서 이런 내용들은 비교적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런 항목들이 대학입시에 반영되면서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IB가 도입된다고 이런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의 근거에 대해서는 더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또 하나 우리나라에서 IB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갖는 이유는 외부 기관에서 평가가 이루어지므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대 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근 IB 도입에 관심을 보인 교육청에서도 이점에 주로 주목하고 있으며 IB 도입에 찬성하는 논리의 근거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교육과정, 교육의 본질적 측면에서 살펴본 IB

평가는 교육과정의 한 부분이다. 따라서 교육과정의 방향과 내용이 올바른 때 평가도 본래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평가를 논할 때는 반드시 교육과정을 이야기 할 수밖에 없다.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들에도 불구하고 IB는 대학입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학문중심으로 이루어진 교육과정이라는 뚜렷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즉 교육과정의 다양성이라는 면에서는 취약함을 드러내고 있어 미래 사회를 위한 교육과정으로 적합한지에 대한 의구심을 낳게 한다. 특히 직업교육 교육과정인 CP의 경우 개발되기 시작하기도 얼마 되지 않아 내용이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발제자는 모든 학생이 IB를 이수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상적이고 올바른 주장이다. 고교학점제를 실시하면 학생들이 IB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가능한 방안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B는 다양한 교과목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어 여전히 복잡해지

는 미래사회를 위해서 적절한 교육과정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이미 IB를 도입한 학교들의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이런 문제점을 그대로 발견할 수 있다.

IBDP 커리큘럼을 살펴보자.

International Baccalaureate DP Curriculum은 다섯 개의 영역에 32개의 교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의 교과는 보통수준(SL)과 고급수준(HL)로 나뉘어진다. 각 영역별 교과 구성은 **Language and literature** (Language A: literature SL/HL, Language A: language and literature SL/HL, Literature and performance SL, Language acquisition, Classical languages SL/HL, Language B SL/HL, Language ab initio SL/HL), **Individuals and societies**(Business management SL/HL, Economics SL/H, Geography SL & HL, Global Politics SL/HL, History SL/HL, Information technology in a global society SL/HL, Philosophy SL/HL, Psychology SL & HL, Social and cultural anthropology SL & HL, World religions SL) **Sciences**(Biology SL/HL, Chemistry SL/HL, Computer Science SL/HL, Design technology SL/HL, Environmental systems and societies SL, Physics SL/HL, Sports, exercise and health science SL & HL), **Mathematics**(Further mathematics HL, Mathematical studies SL, Mathematics SL/HL), **Arts**(Dance SL/HL, Film SL & HL, Music SL/HL, Theatre SL/HL, Visual arts SL/HL) 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교육과정의 교과목 구성이 제한적인 것은 대학입시에 초점을 맞춘 IB 교육과정의 특성으로 영국 A레벨을 따온 결과로 보인다.

이런 교육과정의 취약점은 고교학점제 도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 학교교육의 지향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고교학점제는 미래 사회를 위한 다양한 진로와 가능성을 촉진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다양한 교과목을 개설하여 학생선택권을 확대해야 하는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IB는 교육과정의 다양성 측면(미국의 한 고등학교는 영어과목만 20개의 과목을 개설하고 있다)에서는 매우 부족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일반고의 진학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대학진학에 집중된 교육과정을 도입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문제로 지적 되어온 고등학교 교육의 종속을 더 부추기거나 적어도 완화할 수 없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인지 발제자는 1학년 과정에서 여러 과목을 개설해서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교육과정의 일관성 문제나 위계성을 갖추어야 하는 과목들을 고려하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실제로 IB를 도입한 국내 학교들의 사례를 보면 개설 교과목은 더 제한되어 있어 그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고 교육적으로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

다.

공정한 평가라는 측면에서 IB

발제자는 IB 도입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면서

- 평가의 제도로만 보면 비교과 없이 내신과 수능으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대입의 기본인 단순성, 명료성, 일관성을 확보하고 있고,
- 내용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학종에서 추구하는 여러 가치 있는 비교과활동과 평가들이 내신에 정량화되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학종 이상의 타당성을 갖추고 있으며, 그것이 원하는 일부 학생만 하는 것이 아니라 IB 교육 체제 하에 있는 모든 학생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학종보다 공정하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비교과활동과 평가가 내신에 정량화되어 포함된다는 것은 학생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평가해야 한다는 대학입시의 중요한 요소를 부정하는 것이므로 학종보다 단순하기는 하나 도입 목적에 비추어 타당성은 떨어지게 된다. 또한 IB 체제하의 모든 학생에게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학종보다 공정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것은 학종의 금수저 논란을 의식한 주장인 듯 하나 학종의 경우도 비교과요소를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설득력이 떨어지고 발제자의 일부학생만 IB를 이수할 수 있도록 한다는 앞서의 논리에 배치되는 내용이다.

또한 일부의 주장처럼 논술형 시험으로 모든 학생의 창의성이나 재능과 잠재력을 판단할 수 있다고 믿는 것도 과거의 사고방식이다. 학문을 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으로 글을 쓰는 것이 매우 중요한 능력이기는 하지만 절대적이지는 않다는 것을 간과한 오류일 뿐이다. 논술로 파악할 수 없는 재능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논술형 시험으로 평가하는 것이 공정한 입시의 자료로서 한 영역은 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점은 수행평가와 논술을 병행해야 한다는 발제자의 주장과 일치하지만 학종에서 다루는 영역이 미래 사회에서 요구하는 역량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어떤 보완책이 있는지 답해야 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외국에서 표준화된 평가로서 대학입시가 존재하는 이유를 그것이 공정한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 한다. 하지만 이들 나라에서는 내신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도입하고 있고 학교 교육이나 평가에 대한 신뢰가 높으므로 단순히 공정한 방법이 기 때문에 표준평가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서구사회에 표준화된 평가가 대학입시에 반영되고 존속 가능한 이유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그것은 대다수의 이들 표준화된 평가가 고등학교 졸업 자격을 확인하는 수단으로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다. 고등학교 과정을 제대로 이수하고 대학에서 학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증명하는 것 이상의 과도한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런 외국의 사례는 발제자의 주장처럼 고등학교에서 입시위주의 교육을 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표준화된 평가에 대비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래서 과도한 경쟁이나 별도의 사교육 유발 효과가 높지 않기 때문에 표준화 평가가 유지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경쟁이 심화된 미국의 경우는 좀 다른 특성을 보이지만 최근 미국에서도 이 표준화된 평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늘어나고 아예 SAT나 ACT를 반영하지 않는 대학도 생겨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IB가 관심을 받게 된 것은 일본이 공교육에 도입을 추진한 것이 계기가 되었지만 IB의 평가방식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잘 살펴보면 IB는 70%를 외부 평가로 내부 평가는 30%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확인. 이것은 발제자나 많은 교육관계자들이 교육개혁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교사의 수업과 평가 자율권과 상당한 거리를 느끼게 한다. 어떻게 보면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명분 때문에 현재 단위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평가권을 IB에 넘기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이 수능을 여러 번 보는 것과 어떻게 다른지 설명이 필요하다.

또한, 교사에게 평가권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논리의 근거는 수업을 한 교사가 자신의 수업 의도에 따라서 평가를 해야 정확하고 교육적인 평가가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평가의 공정성을 이유로 그 본질을 훼손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되는 우를 범하는 일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한 대안

IB가 검증되고 공인된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이 제도의 긍정적인 측면을 도입하는 것에는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고등학교에서 IB의 인증을 받고 그것을 전 국가적으로 도입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그리고 이미 우리 교사들도 상당한 수준의 수업과 평가에 대한 역량이 쌓여 있으므로 수행평가와 논술형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는 원인을 제거하고

이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에 집중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걸림돌은 늘 제기되어 왔던 학교 내신성적에 대한 신뢰의 문제이다. 이것은 IB처럼 표준화된 평가로 손쉽게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IB 도입자체가 쉽지 않은 과정이므로 이것도 손쉬운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학교내신 성적 산출의 공정성과 객관성 그리고 학교 간 균일성 유지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여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다른 외국의 내신평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남호주 사례

남호주의 교육과정은 대학입시에 반영되는 11, 12학년 과정은 남호주 교육인증체제인 SACE(South Australia Certificate of Education)에 따라 Stage 1과 Stage 2로 이루어진 학점제 교육과정으로 운영된다(조현영외, 2018: 200).

SACE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는 각 교과에서 실시한 평가 결과에 대한 조정작업(moderation)이다. 평가는 성취기준에 따른 절대평가로 실시되고 교사와 학교 그리고 교과마다 평가의 편차를 조정하여 일관성과 객관성을 꾀하려고 노력한다. 특히 평가 결과는 교과 이수의 기준, 즉 이수와 재이수 여부나 이후 심화 교과의 신청 여부 등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평가는 Stage 1과 Stage 2에서 다르게 이루어지는데 Stage 1에서 모든 수행과제에 대한 평가 작업은 학교의 교사들이 실시한다. Stage 1에서 1년 동안 영어와 수학 과목을 필수적으로 수강, 모두 C등급 이상을 받아야한다. 이 두 분야의 평가는 교사가 실시하고 외부 평가자(external SACE moderator)가 확인하는 교차 평가로 실시하여 모든 학교에서 일관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조정한다.

Stage 2에서는 학교평가와 외부평가 두 단계로 평가하며 일부 과목에 한하여 표준화 시험도 존재한다. 이 경우도 학교 평가는 70% 외부평가는 30%가 반영된다. 학생의 수행과제에 대한 교사 평가는 최종 결과 대비 70% 수준이다. 교사는 성취 기준에 기반하는 학생들의 작업 평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SACE 위원회는 성적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주 전역의 다른 학생들과 비교할 수 있도록 각 학급에서 학생들의 작품 샘플을 제공한다. 또한 성적의 확인과 조정을 위하여 매년 말에 SACE 위원회는 한 학교에서 받은 성적과 다른 학교에서 받은 성적을 비교하도록 한다.

외부 평가는 SACE Marker가 모든 과목에 대해 외부 평가를 실시하며 그 평가가 차지하는 비율은 최종 평가 결과의 30% 수준이다. 이러한 평가는 시험, 구술시험, 주요 탐구과제 또는 공연 등의 방식으로 평가한다.

표준화 시험이 실시되기도 하는데 일부 Stage 2 과목에 한해서 SACE 위원회에서 작성하고 평가하는 시험을 실시한다. 이 시험의 대부분은 10월부터 11월까지 4주에 걸쳐 실시한다. 시험 시간표는 매년 1 학기부터 SACE 웹 사이트에서 제공되며, 일부 언어 과목에는 구술시험도 있다.

2) 뉴질랜드 사례

뉴질랜드는 국가 교육과정이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매우 폭넓게 보장하고 있는 체제이다. 학생의 과목 선택의 자율권이 가장 많은 국가에 속하는 뉴질랜드는 국가가 필수 교과나 교과별 단위를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다. 국가교육과정 문서에 국가교육과정은 구조(framework)이지 세부사항을 규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뉴질랜드 교육 과정은 영어, 예술, 건강 및 체육, 학습 언어, 수학 및 통계, 과학, 사회 과학 및 기술 등 8 가지 학습 영역(learning area)을 규정하고 있다. 각 학습영역은 8개 수준(level)으로 단계가 나누어져 있으며 각 단계는 특정학년이 아니라 3~4개 학년군에 걸쳐서 적용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것은 학생들의 학습속도에 따라서 개인별 맞춤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유연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뉴질랜드의 고등학생들은 11학년부터 13학년에서 NCEA Level 1, 2 또는 3에 해당하는 표준에 도달하면 이에 해당하는 학점을 취득한다. 이 표준에는 학생이 알아야 할 내용(학습내용)과 할 수 있는 일(성취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NCEA에서도 구체적인 교과의 단위나 시수를 규정하지는 않고 있지만 학생들은 NCEA 인증을 위해서 레벨 1은 문해력 및 수리력을 포함한 모든 레벨 (레벨 1, 2 또는 3)에서 80 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레벨 2는 레벨 2 이상에서 60 크레딧 또는 모든 레벨에서 20 크레딧을 이수해야 하며 레벨 1의 문해력 및 수리력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레벨 3은 레벨 3에서 60 크레딧 그리고 레벨 2 이상에서 20 크레딧 이상을 이수해야 하며 레벨 1의 문해력 및 수리력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이 표준들에 얼마나 도달했는지 측정하기 위해서 내/외부 평가를 다양하게 사용한다.

이 표준 중 일부는 학급 교사가 내부적으로 평가하고 일부는 11월과 12월 NZQA 시험으로 외부 평가로 이루어진다. 모든 과목이 외부평가를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특히 과도한 부담을 주는 평가를 지양하도록 하고 있다.

3) 스웨덴

3, 6, 9학년에 국가고시를 실시하는데 모든 성적은 공개되고, 학교 내신 성적에 반영하도록 권고되고 있다. 동일한 시험문제로 전국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구술시험, 주관식, 작문으로 이루어진 주관식 시험이다. 학교별로 채점하여 결과를 공개하지만 차후 무작위 추출을 통해 학교별 채점을 검증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러한 국가고시는 서열화를 위한 시험이라기보다는 부족한 부분을 진단하여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는 시험으로 학교 간의 과열 현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대학입학은 우리의 수능에 해당하는 국가시험으로 1/3, 고등학교 내신성적으로 1/3, 그리고 대학자율로 1/3을 선발한다. 학교 내신성적이 대학입시에서 중요한 평가요소로 작용하지만 학생들을 평가하는 방식은 절대평가이다. 이 절대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평가에 책임을 지는 교사와 공동평가자를 교장이 임명한다. 학생들에게 평점을 주는 것은 책임 교사의 독립적인 작업이지만, 평점을 결정하기 전에 공동평가자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공동 평가자는 중등 교육에 관한 지식 분야에 경험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다른 교사일 수도 있고, 대학이나 직장 생활의 대표일 수도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대학입시에서 내신성적을 중요하게 반영하는 나라들에서도 내신 절대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들 나라에서 내신절대평가가 큰 논란이 되지 않는 것은 기본적으로 교사의 평가에 대한 신뢰도 있지만 이 내신성적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정성과 학교 간 균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을 다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앞선 사례 국가들의 예에서처럼 교육청에서 외부 시스템(가칭 ‘고등학교 교육과정평가원’)을 구축하고 학교 내부평가에 대한 모니터링과 개입을 통해서 학교 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현실적으로 타당한 접근이 될 것이다. 이 외부 위원회는 현직 교사들도 포함하는 전문가 그룹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현직 교사들이 포함되면 이 과정을 통해서 교사들의 평가능력도 향상되고 교사 그룹 내에서 평가의 방향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런 제도가 도입되면 학교 간의 수업과 평가에 대한 활발한 정보교류가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서 학교 교육의 상호 촉진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므로 단순한 평가 신뢰도 향상만이 아닌 다양한 교육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물론 IB를 도입하면 교사 연수도 당연히 이루어질 것이지만 일방적으로 규정된 내용을 습득하고 따르는 방식이 되기 쉽다. 이미 우리나라 교사들은 교과연구회의 전통과 혁신학교 운동으로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와 수업과 평가의 전문성이 매우 높아져 있다. 그러므로 교사들 스스로 수업과 평가에 대해 토론과 고민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이 더 현명한 접근이 될 것이다.

IB는 한국의 낮은 평가 체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 제3토론

평가 패러다임의 전환, 왜 IB이어야 하는가?

전대원(위례한빛고 교사)

들어가는 글

IB도입에 대한 토론회 참석 요청을 받고, 어떻게 위치 선정을 하고 토론에 임해야 하는가가 고민되었다. 우리나라 교육 담론 구조가 교육 운동에 치우친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실제로 우리 교육 논쟁사를 보면 교육 당국과 교육 운동 세력 간 대립의 역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총과 전교조 등 교원 단체가 교육 담론 구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왔으나, 이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교육 관료와 교육 운동 세력과 깊게 연결되어 있어서 현장 교사의 시각에서 담론에 참여하여 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현직 교사로서 토론에 임함에 있어서 현장의 생생한 경험에 바탕을 둔 시선을 전달하고자 마음을 먹었다. IB에 대해서는 어느 교육평론가는 ‘꽃혔다’ 라는 표현을 쓸 정도 강고한 확신을 갖고 있었는데, 이 시점에서 약간의 감속 페달을 밟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다. 한국의 교육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교육 개혁은 실패로 귀결되었고, 개혁의 상시화라는 현상을 낳았다. 개혁은 상시적으로 이뤄지는데 반해서, 교육 현장은 나아지지 않고 있거나 오히려 후퇴했다는 느낌마저 주고 있다.

어떤 제도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교육 만능주의 시선에서 벗어나서 제도의 미비점을 성찰하고 담론 구조의 문제를 심도 깊게 관찰했으면 한다. 이런 점에서 강한 비판일지라도 이것이 IB담론, 나아가서 한국 교육 담론 구조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기대를 하

고 본 토론을 시작하고자 한다.

1. 세계의 대학 입시

대학 입시를 비교할 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은 수능의 위상이 결코 과거와 같지 않다는 것이다. 이미 한국의 대학 입시는 매우 다양화되어 있고, 본 발제문에도 나와 있듯이 IB과정의 도입 자체가 일본에 비해 수월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것도 수시 전형의 존재 때문이다. 한국 현실을 언급하는 데 있어서 IB도입의 당위성에 따라 교육 상황을 취사선택하는 느낌이 든다.

본 발제문의 ‘꺼내는 교육 VS 집어넣는 교육’의 대립적 술화구조는 이미 한국의 입시에서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대학에서는 수시 제도를 활용하여 논술과 심층면접이 대학 입시에서 오랫동안 활용하여 왔고, 작금에 와서는 학종의 과다가 오히려 일부 학부모의 문제제기를 받을 정도로 과거의 패러다임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교육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내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교사의 평가계획서는 해당 교과 교사들의 협의 하에 만들어지고, 내부 연구 인력에 의해 검토가 이뤄지고, 이는 다시 교육청 전문가에게 보내져 검토완료 후에 완성이 된다. 올해 새로 나온 지침에 의하면 수행평가가 전체 평가의 40% 이상으로 설정되어 필기시험의 비중은 60%로 낮아졌다. 전체 점수에서 논술형이 차지하는 최소 비율은 35%로, 선다형 지식 측정 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외국의 입시 현실은 끊임없이 살펴보고 벤치마킹할 것이 있으면 늘 도입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겠지만, 우선적으로 한국의 교육 현실에 대한 일방적 규정은 없는지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일본의 교육 혁명

IB도입을 ‘혁신’에 비교하고 있으나, 아직은 장밋빛 전망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본 토론회에 오기 전에 일본 대학을 준비하는 고3 학생을 만나 대화를 나누었다. 일본 대학 입시 준비 과정에 대한 경험을 듣기 위해서였다. 수능 시험과 자기소개서 제출, 논술형 본고사

등의 시험을 치르는 과정이었다.

본 보고서에서도 아직 일본은 시험이 진행 중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일본이 앞서간다는 표현보다는 이웃 나라의 진행 과정을 주도면밀하게 지켜보아야 한다는 결론이 더욱 타당해 보인다.

더욱이 불안스러운 것은 교육 정책의 결정이 정권 차원에서 이뤄졌음을 시사하는 내용들이다. 어떤 부분에서는 정치적 결단이 될 수도 있으나, 결단이 필요한 것과 그 결단이 ‘혹선’의 사례와 같이 역사적 전기가 되느냐의 문제는 서로 범주가 다른 문제이다. 결단은 필요조건이지 성공의 충분조건이 아니다. 또한 정치적 결단은 교육에 있어서 긍정적 효과보다는 부정적 효과가 많았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3. IB의 한국어화 및 공교육에 시점 도입

IB한국어화의 예산 확보에서 안이한 점을 보이고 있다. 교사 인건비나 연수비, 혁신학교나 과학중점학교 예산들이 있으니 이를 활용해도 된다고 하였는데, 이미 이 예산들은 교육적 필요에 의해서 쓰이고 있는 것들이다. 어느 부분에서 활용되고 있는 예산을 IB예산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그만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또한 이것이 바로 예산 확보의 과정이다.

‘영어가 가능한 교원들을 차출하여 수개월에 걸쳐 집중 훈련’을 한다는 발상도 과연 학교의 현실을 알아보고 내놓은 방안인지 의심스럽다. 일단 ‘영어가 가능’이라는 조건은 단순한 회화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할 수 없을 것이다. 해당 과목에 대하여 영어로 학문적 접근에 준하는 수준의 어학 능력을 갖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해당 인적 자원이 이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 충족까지 고려한다면, 얼마나 이에 대한 현실적 가능성을 고려했는지 의구심이 든다.

아예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다. 예산 확보의 과정과 영어 가능 교원 차출이라는 발상의 안이함과 이것이 현실 가능태로서 존재토록 하려면 막대한 예산의 소요를 현실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4. 예시된 시험문제에 대한 평가

시간은 문학 작품의 중요한 주제이다. 시간은 ‘미래를 위한 희망’, ‘잃어버림과 슬픔’, ‘추억의 중요성’ 등 인간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공부했던 작품 중에서 시간의 중요성에 대해서 논하시오.

IB의 강점은 논술형 평가에 있다고 보는데, 위의 예시 문제를 보건대 경쟁력에 대하여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오랫동안 대입 논술을 지도한 경험에서 봤을 때 위의 문항은 정교함과 타당성에 있어서 한국 대학의 논술 출제 능력에 비하여 가진 비교우위를 검증할 수가 없다.

다시말해 대학별 논술고사와 비교하였을 때, 굳이 IB로 가야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한국의 현실은 대학입시의 시험 제도가 중등교육을 규정한다. IB의 도입 명분도 그러한데, 이것이 타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시험 문제의 질적 수준 자체가 그것을 담보할 것이다.

만약 예시된 수준 이상의 문제 출제 능력을 IB가 보여주지 못한다면, 고급스런 한국 교육 관계자들의 입맛을 만족시키긴 어려울 것이며, 세계적으로도 강한 경쟁력을 보이고 있는 한국 사교육은 아주 재빠르게 이 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정도 난이도와 표준화는 한국 사교육이 적응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나오는 글

하나의 패러다임 하에서 교육을 설계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정책이라는 것은 무수한 늪을 건너가야 하며, 수많은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가치관의 충돌을 극복한 후에 도입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교육은 이러한 정도가 심하면 심했지 결코 덜한 분야가 아니다.

만약 IB도입에 대하여 강한 확신이 있다면 더욱 정교한 모델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이런 면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담론 시장의 우위성을 바탕으로 제도를 도입할 경우에 이는 관료적 시스템과 결합하여 더욱 우려스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자격고사로 구상된 수능이 오늘날과 같은 모습을 갖게 된 것은 한국의 현실과 제도가 서로 조응하면서 나타난 결과물이다. 이 결과물을 비난하는 것은 쉽지만, 이것을 극복하는 것은

수능이 아니라 다른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숙제로 남게 된다.

이 제도가 수능보다 한국의 교육 현실을 더 확실하게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교사들 비롯한 교육 전문가들에게 설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IB는 한국의 낮은 평가 체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 제4토론

바람직하나 실현가능성이 낮은 IB, 그 대안으로 서술형 대학수학능력시험

전정원(전앤장통합논술학원 원장)

1. 들어가며

미래 핵심 역량으로 4C(창의력(Creativity), 비판적 사고력(Critical Thinking), 소통 능력(Communication), 협업 능력(Collaboration))을 들 수 있습니다. 상대방 논리를 경청하고 이해하고 동의하거나 때로는 자신의 논리로 반박하고 설득하는 능력이 분명 필요한데, 이런 능력은 객관식 시험에 초점이 있는 현행 교육체제에서 키워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토론하고 논술하는 질적 교육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고,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의 타당성 검토와 그 대안의 탐색은 유의미할 것입니다.

2.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의 타당성 여부

가. 우리나라 교육의 이상과 현실

교육의 목적은 학생들의 지성, 감정, 신체, 사회성의 성장 등을 조화롭게 하여서 넓은 교양과 건전한 인격을 갖춘 인간을 육성하는 전인(全人)교육입니다. 이러한 이상향에도 불구하고

고 현실은 대학입학시험이 정점에 서있어 나머지 교육과정이 종속되고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나. 입시제도 중심의 우리나라 교육 현실

어느 나라보다 높은 교육열과 그로 인해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현실에서 보듯, 우리나라의 교육은 대입제도가 중심이고 대입제도가 고등, 중등, 초등 교육과정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대입제도가 버티고 있으면서 하향식으로 저학년 교육과정을 통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입시제도 구조를 살펴봐야 하는데, 이는 크게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 특기자전형, 논술전형, 정시전형으로 구성됩니다. 이때 학생부교과와 정시는 객관식 평가, 논술은 주관식 평가, 특기자는 실기 평가에 그 뿌리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1학년 때에는 내신에 초점을 두면서 비교과 활동을 병행하고 생각보다 내신이 나오지 않을 경우 2학년과 3학년을 거치면서 논술 또는 수능으로 대입전략을 바꾸거나 병행하는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학입시를 위해 1학년 교과로 시작하여 3학년 수능으로 마무리되는 경로를 보통은 거치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등교육의 시작과 끝에서 객관식 평가에 직면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대로 IB 인재상은 소통과 공감에 필요한 ①경청 ②이해 ③동의 또는 반박 ④설득 4가지 능력을 기르는 데 적합하지만, 객관식 평가는 ③반박 ④설득 능력을 키우는 데 부적절합니다. 객관식 평가는 다수를 평균적 인간으로 만드는 데 효율적일지는 몰라도,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강사들이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으로 전달하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학생 본인이 자신을 표현하거나 상대방을 설득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다. 바람직한 교육과정으로서 IB

IB의 인재상을 보면 탐구적 질문하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 성찰하는 사람, 소통할 줄 아는 사람, 균형을 갖춘 사람, 위험을 감수하고 도전하는 사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회구성원 간 소통과 공감에 필요한 경청, 이해, 동의나 반박, 설득 능력을 키우는 데 적합한 인재상이라 할 것입니다. 사회 생활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도 자신을 온전하게 표현하고 상대방을 왜곡없이 이해하면서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갖춘 IB의 인재상이 바람직하다면, 그 다음으로는 우리나라 교육현실에서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

라. 실현가능한 교육과정으로서 IB

IB를 우리나라에 적용함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예산이 아니라 바로 국민정서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자생적 모형이 아닌, 서구의 교육제도인 IB를 국가 차원에서 도입하려 한다면 그 제도를 도입하려고 시도하는 정권의 지지율 추락은 불 보듯 뻔하고 제도도입과 관련된 소모적인 논쟁만 발생할 것입니다. 그동안의 학생부종합전형에 참고해본다면 IB 도입의 결과는 예상 가능합니다. 미국식 입학사정관제를 이명박 정부에서 도입하여 지금의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변화했습니다. 그러나 학생부종합의 이행과정에서 국민적인 합의와 공론화 과정이 불충분했고 국민 정서상 예측성, 공개성, 투명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정답이 딱 떨어지는 맛이 없는 학생부종합에 대해 불신이 커졌습니다. 그와 동시에 낱감이 평가하는 대학교, 몰아주기 하는 고등학교에 대한 불신도 덩달아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를 의식해서인지 앞선 정부와 다르게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를 설립하여 앞으로의 대입제도 논의를 지속하고 있으나 지지율 하락과 저항을 감수하면서까지 외생적 교육제도인 IB를 직접적으로 언급할지는 의문입니다.

3. 현대적 교육으로의 전환

가. 근대적 교육에서 현대적 교육으로의 전환에 대한 고민

객관식 평가에 초점을 맞춘 지금의 교육은 교사가 학생에게 일방적으로 지식을 주입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과거에 학생 수 대비 교사의 수가 부족했기 때문에 양적으로 효율성이 있는 수업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출산으로 인해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급격하게 감소하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교사 수는 유지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현실점이 양적 수업에서 질적 수업으로 전환이 가능한 적기라 보입니다.

나. 질적으로 개선된 교육과 입시제도의 관계

앞서 살펴본 것처럼 IB가 국가 차원에서 도입되기 어렵다고 한다면, 지방 교육청 차원에서 개별적인 도입은 가능해 보입니다. 이미 대구교육청에서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IB 도입이 질적으로 개선된 교육에 반드시 필요한 전제조건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대학입학시험이 교육과정의 정점에 있기 때문에 입시체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IB 도입의 효과는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공교육 현장에서 IB를 도입할 것이냐를 먼저 논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입시제도를 미래인재 육성에 맞게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고 나서 공교육 현장의 변화를 논해야 할 것입니다.

다. 입시제도에서 질적 평가

현재 대학입학은 수시와 정시로 구분되어 있고, 수시는 크게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 특기자전형, 논술전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인 특기자전형을 제외한다면 학생부종합과 논술전형이 질적으로 개선된 입시제도에 가장 친화적인데, 다 아시다시피 학생부종합에 대한 호불호는 양극화되어 있고 대중적으로 부정적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따라서 질적으로 개선된 입시제도를 위해 IB의 수입 대신에 현재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논술전형을 활용하여 객관식 수학능력평가를 전면적으로 서술형 수학능력평가로 전환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학입학시험 3년 예고제가 적용되고 있으므로 지금의 고1 학생이 응시하는 2022학년도 입시까지 유예하고, 2023학년도 입시 이후부터 적용을 예고한다면 충분히 한국형 수학능력시험을 안착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의 수능시험을 출제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출제진을 섭외하고 외부와 차단하여 보안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동일하게 전국 단위의 질적 평가를 한다면 다음 장과 같은 설계가 가능합니다.

〈인문계 서술형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지의 구성〉

개별 교과	개별 교과	개별 교과	개별 교과	개별 교과	개별 교과	개별 교과	개별 교과	개별 교과	통합 논술
국어 논술	수학 논술	영어 논술	정치 논술	경제 논술	사회 논술	윤리 논술	역사 논술	영어형 도표형 수리형	

<이공계 서술형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지의 구성>

개별 교과	개별 교과	개별 교과	개별 교과	개별 교과	개별 교과	개별 교과	개 별 교 과	통합 논술
국어 논술	수학 논술	영어 논술	생명 과학 논술	화학 논술	물리 논술	지구 과학 논술	역 사 논 술	도표형 수리형

※ 현재의 수능 문제지처럼 모든 교과에 대한 서술형 문항을 출제하고, 통합형 문항을 추가로 출제하여 문제지를 배부

※ 개별논술 문항은 고등학교 선생님이 출제하고 교수진이 검토

※ 통합논술 문항은 교수진이 출제하고 고등학교 선생님이 검토

※ 모든 학생은 개별논술 3과목은 의무적으로 응시(현재 국수영 시험시간에 작성)

※ 통합논술 중에 1개 유형은 선택적으로 응시(현재 탐구 제2외국어 시험시간에 작성)

※ 변별력을 원하는 대학은 통합논술 3가지 유형에서 1가지 유형을 추가로 요구가능

※ 예시1) 영어영문학과에 진학하려는 학생의 경우 개별교과 국어 영어 윤리 선택가능

※ 예시2) 경제학과에 진학하려는 학생의 경우 개별교과 수학 영어 경제 선택가능

추가로 상위권 대학에서 요구하는 통합논술 1유형 선택가능

※ 예시3) 반도체학과에 진학하려는 학생의 경우 개별교과 수학 영어 화학 선택가능

추가로 상위권 대학에서 요구하는 통합논술 1유형 선택가능

※ 상위권 대학은 통합논술 3가지 유형에서 1가지 유형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 출제위원은 해당 논술문항의 채점기준표를 작성하여 공개하고 공통적용

※ 원서를 접수받은 해당 학교는 작성된 답안을 공개된 기준에 의거하여 채점

※ 채점기준표에 따라 채점된 시험지의 결과는 공개하여 채점 신뢰성을 제고

※ 대학입학 원서접수는 서술형 수학능력평가 이후에 실시하여 자신이 응시한 과목과 친화적인 학과에 접수하도록 유도

라. 공교육 현장에서 질적 평가

: 앞의 논의대로 질적 평가 중심의 수능시험이 치러질 때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

다. 첫째, 수시와 정시를 통합하고 수능시험을 3학년 2학기 이후로 조정하며 대입원서접수를 수능시험 이후에 실시하여서 공교육이 정상 운영되도록 합니다. 둘째, 학생부교과와 종합에서 3학년 2학기까지 반영하여 평가합니다. 셋째, 학생부교과는 교사2인의 추천서와 생활기록부만으로 평가하고 자기소개서와 면접을 금지합니다.(교사추천이므로 학교를 전적으로 신뢰하되, 학교장추천이 아닌 교사2인 추천으로 학교당 10% 내외로 제한) 넷째, 학생부종합에서는 교사추천서와 자기소개서를 금지하고 생활기록부와 심층면접으로 평가합니다.(잠재역량과 인재상 충족여부는 해당 대학이 검토할 의무가 있음) 이러한 조건 하에 교육과정을 설계하면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수시와 정시가 통합된 대학입학시험

- 서술형 수학적능력평가 이후에 대입원서접수를 하고 응시 기회는 현행보다 축소
- 12월~2월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특기자실기, 논술형 수능시험 채점 후 결과발표

고등교육

- 100% 논서술형 절대평가 실시
- 이수(good)와 탁월함(excellent)으로 기록 cf.대구외고 멜버른 IB 보고서 참조
- 이수에서 탁월함으로 개선할 수 있는 퇴고와 보완 기회 부여(과정을 그대로 기록)
- 학생부교과에서 교사추천이 있으므로 학교 수업 몰입감 유지 가능
- 학생부종합에서도 수업 이수/탁월함 여부가 고려되므로 학교 수업 몰입감 유지 가능
- 논술형 수학적능력시험에서도 수업 내용이 활용되므로 학교 수업 몰입감 유지 가능

중등교육

- 100% 논서술형 절대평가 실시
- 이수에서 탁월함으로 개선할 수 있는 퇴고와 보완 기회 부여(최종 결과만 기록)
- 팀별 프로젝트 수업유도(협업중시)

초등교육

- 100% 논서술형 발표/토론 실시(평가 금지)
- 개별 스토리텔링 수업유도(자기표현능력중시)

마. 교과 논술과 통합 논술의 관계

: 창의력 증진을 위해 통합 수업, 융복합 수업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창의성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능력이 아닙니다. 개별과목의 이해가 선행되고 최소한의 유가 있는 상태에서 창의적인 유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1~2학년 과정에서 개별과목을 이수한 다음에 3학년 과정에서 통합논술 또는 통합수업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현재 학교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통합사회나 통합과학의 수업은 학생들의 수업 집중도가 현저히 떨어질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자신들의 전공과목을 나누어서 수업하고 종료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통합과 통섭의 능력은 개별교과의 이해가 전제되어야 가능한 협업과 소통 그리고 응용의 단계로 인식되어야 하며, 배우는 학생뿐 아니라 가르치는 선생님들끼리의 협업도 이뤄져야만 창의성과 소통 능력이 살아나는 통합의 본래 의미가 살아날 것입니다.

3. 나가며

서술형 수학능력시험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세한 채점기준의 공개와 채점결과의 공개가 필수입니다. 현재 논술전형은 그나마 채점기준표가 공개되므로 비판이 학생부종합전형보다 덜 합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의 신뢰성이 낮은 이유는 평가기준과 그 기준에 의해 평가되는 과정과 결과를 합격생이든 불합격생이든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합격과 불합격만 통보되기 때문에 불쾌감이 쉽게 유발됩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알 수 없는 과정에 의해서 입시가 결정되기 때문에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객관식 수능을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답표를 보고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자신이 알 수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쉽게 점수화된 현실에 수긍하게 됩니다. 객관식이라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평가기준과 결과를 알 수 있고 그 결과에 맞게 어느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지 대략적으로 예상할 수가 있어서 학생과 학부모는 그것을 공정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공개성, 예측성이 가미된 서술형 수학능력시험을 도입한다면 공교육 정상화뿐만 아니라 급감하는 학생들에게 질적으로 개선된 교육을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요약본>

전정원(전안장통합논술학원 원장)

1. 들어가며

4C(창의력(Creativity), 비판적 사고력(Critical Thinking), 소통 능력(Communication), 협업 능력(Collaboration))은 객관식 시험에 초점이 있는 현행 교육체제에서 키워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토론하고 논술하는 질적 교육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고,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의 타당성 검토와 그 대안의 탐색은 유의미합니다.

2.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의 타당성 여부

가. 우리나라 교육의 이상과 현실

: 지성, 감정, 신체, 사회성의 성장 등을 조화롭게 하여서 넓은 교양과 건전한 인격을 갖춘 인간을 육성하는 전인(全人)교육이 이상이지만, 현실은 대학입학시험을 위주로 교육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나. 입시제도 중심의 우리나라 교육 현실

: 우리나라의 교육은 대입제도가 중심이고 대입제도가 고등, 중등, 초등 교육과정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IB 인재상은 소통과 공감에 필요한 ①경청 ②이해 ③동의 또는 반박 ④설득 4가지 능력을 기르는 데 적합하지만, 현행 객관식 평가는 ③반박 ④설득 능력을 키우는 데 부적절합니다.

다. 바람직한 교육과정으로서 IB

: IB의 인재상을 보면 탐구적 질문하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 성찰하는 사람, 소통할 줄 아는 사람, 균형을 갖춘 사람, 위험을 감수하고 도전하는 사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회구성원 간 소통과 공감에 필요한 경청, 이해, 동의나 반박, 설득 능력을 키우는 데 적합한 인재상입니다. IB는 바람직함이 충족됩니다.

라. 실현가능한 교육과정으로서 IB

: IB를 우리나라에 적용함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예산이 아니라 바로 국민정서입니다. 현재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반감에다 외국의 제도인 IB 도입 논란을 더할 정부는 없습니다. IB는 실현가능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3.현대적 교육으로의 전환

가. 근대적 교육에서 현대적 교육으로의 전환에 대한 고민

: 감소하는 학생 수와 유지되는 교사 수를 감안했을 때 지금이 양적 수업에서 질적 수업으로 전환이 가능한 적기입니다.

나. 질적으로 개선된 교육과 입시제도의 관계

: 입시제도를 미래인재 육성에 맞게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고 나서 공교육 현장의 변화를 논해야 합니다.

다. 입시제도에서 질적 평가

: 현재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논술전형을 활용하여 객관식 수학능력평가를 전면적으로 서술형 수학능력평가로 전환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학입학시험 3년 예고제가 적용되고 있으므로 지금의 고1 학생이 응시하는 2022학년도 입시까지 유예하고, 그 이후부터 적용을 예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라. 공교육 현장에서 질적 평가

: 첫째, 수시와 정시를 통합하고 수능시험과 대입원서접수를 3학년 2학기 후로 조정하여 공교육이 정상 운영되도록 합니다. 둘째, 학생부교과와 종합에서 3학년 2학기까지 반영하여 평가합니다. 셋째, 학생부교과는 교사2인의 추천서와 생활기록부만으로 평가하고 자기소개서와 면접을 금지합니다.(교사추천이므로 학교를 전적으로 신뢰하되, 학교장추천이 아닌 교사2인 추천으로 학교당 10% 내외로 제한) 넷째, 학생부종합에서 교사추천서와 자기소개서를 금지하고 생활기록부와 심층면접으로 평가합니다.(잠재역량과 인재상 충족여부는 해당 대학이 검토할 의무가 있음) 이러한 조건 하에 고등교육에서는 내신의 절대평가 시행과 그 과정서술, 중등교육에서는 절대평가 시행과 최종결과만 서술, 초등교육에서는 평가금지를 적용합니다.

마. 교과 논술과 통합 논술의 관계

: 통합과 통섭의 능력은 개별교과의 이해가 전제되어야 가능한 협업과 소통 그리고 응용의 단계로 인식되어야 하며, 배우는 학생뿐 아니라 가르치는 선생님들끼리의 협업도 이뤄져야만 창의와 소통의 통합 교육 의미가 살아날 것입니다.

3. 나가며

서술형 수학능력시험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세한 채점기준의 공개와 채점결과의 공개가 필수입니다. 공개성, 예측성이 가미된 서술형 수학능력시험을 도입한다면 공교육 정상화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개선된 교육을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 종합토론

IB는 한국의 낮은 평가 체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 근본적이고 통합적인 미래형 대입 제도를 모색하는 7회 연속 토론회②

일시	토론회명	■발제 □토론(가나다순)
1차 3/21(목) 오후 6시 30분	‘국민통합입시’를 탐색한다 -서울대 100% 지역균형선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조기숙(이화여대 교수) <input type="checkbox"/> 구분창(본 단체 정책국장) <input type="checkbox"/> 백선숙(학부모) <input type="checkbox"/> 이기정(구암고 교사) <input type="checkbox"/> 이성대(신안산대 교수)
2차 4/11(목) 오후 3시	5지선다 수능에서 논술형 국가시험으로	“IB는 한국의 낡은 평가 체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이해정(교육과학연구원 소장) <input type="checkbox"/> 김진우(세종과고 교사) <input type="checkbox"/> 이성대(신안산대 교수) <input type="checkbox"/> 전대원(실천교육교사모임 정책위원) <input type="checkbox"/> 전정원(전엔장논술학원 원장)
3차 4/18(목) 오후 2시		“IB 추진 : 현재 정책 도입은 어디까지 왔고 과제는 무엇인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동진(본 단체 책임연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윤 준(대구교육청 장학사)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이해정(교육과학연구원 소장) <input type="checkbox"/> 우종수(DGIST 이사장, 전)포스코교육재단 이사장) <input type="checkbox"/> 전경원(참교육연구소 소장)
4차 4/25(목) 오후 2시		“IB 아닌, 국가/학교의 논술형 평가의 길은 없는가?” <input type="checkbox"/> 제안자 공개 모집 중
5차 5/2(목) 오후 2시		‘대학입학보장제’의 필요성을 점검한다
6차 5/9(목) 오후 2시	‘대학입학보장제’ 안착을 위한 조건과 과제	※4~7차 토론회에 대한 발제 및 토론자는 4/18(목) 3차 토론회 예고보도 때 발표합니다. ※토론회 세부일정은 단체와 협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7차 5/23(목) 오후 2시	종합적 미래 지향적 대입제도를 제시한다	

